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BETTER PEOPLE BETTER WORLD



Chang 20
City

인생의 황혼기, 새로운 꿈을 향해 뛰어가는 식지않는 열정

머릿글 한몸사회연구소 원장 허신행

4월 프로그램

화제의 강연 명지대 건축대학장 김석철

커버스토리 2014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한승수

창조경영 두바이 독서경영 오픈세미나

지자체특강 탐서비스아카데미 원장 한상숙

발행인 편지

세상을 보는 눈 (주)여성신문사 사장 김효선

회원 & 연구원소식

LMI for Your Personal Leadership

독서경영캠페인

정보비타민

Health Info 대인관계클리닉 원장 양창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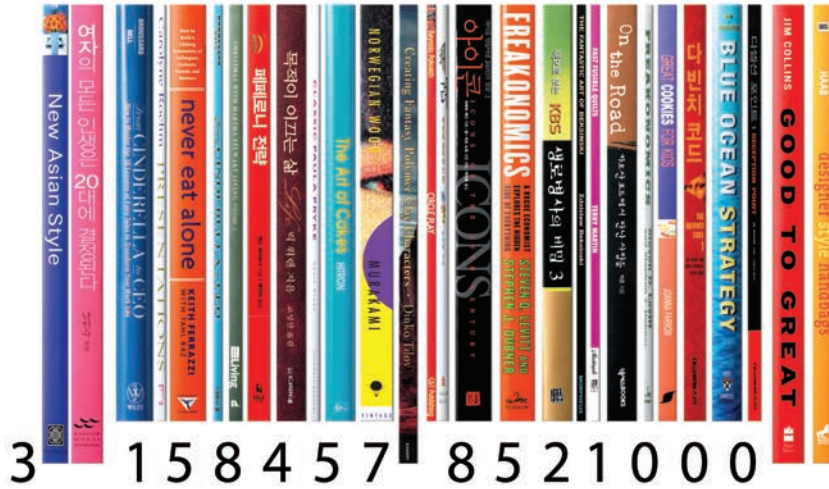
조순칼럼

표지인물 한승수 위원장 / 사진 오경근 원장

4

2007 April

등록 제74호 [매체] 등록번호 : 서울 라 09006 발행인 : 2007년 4월 1일 발행인 : 최만기 인간개발연구원(KHIHDI) 주소 : 138-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강남우체국 B/D 5동 T.2203 2500(선) F.2203 1974 www.khihdi.or.kr 디자인 : 팀원 이계경 인쇄 : (주)동양인쇄 T.492 6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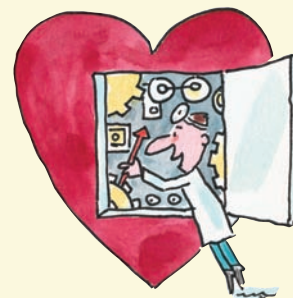


“인생이 즐거워지는 315만 가지 방법, 교보문고”

삶의 특별한 즐거움을, 새로운 변화를 원하신다면 교보문고를 만나세요!
교보문고에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315만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식정보사회는 오진이었다

허신행 한문사회연구소 원장 / 전 농림수산부 장관



민주주의가 좋긴 하지만 진리나 진실만은 다수결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될 성질의 것은 결코 아니다. 다수가 믿고 따른다고 하여 옳지 못한 것이 옳은 것으로 변형될 수는 없는 법. 4백년 전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지동설(地動說)이 이것을 상징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진실은 사람들의 믿음이나 중요성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증명으로 밝혀지는 것인데, 지식정보사회는 그런 증명의 발판 위에서 있지 않다.


그럼에도 산업사회 이후의 새로운 문명사회를 '지식사회'나 '정보사회'로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지식과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데, 인간의 생존이나 사회생활에 이득보다 더,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중요도의 차원에서 볼 때, 지식과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기나 물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공기나 물 사회'라고 말하지 않는 것인가? 공기는 단 1분만 없어도 사람들이 죽는데도 말이다. 공기는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이다. 만일 공기가 부족하여 한달 이내로 없어진다고 가정해 보라. 산업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대부분의 산업시설은 공기의 생산과 유통으로 급변하고 말 것이다. 그래도 지식정보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지식과 정보는 인터넷에 들어가 키워드를 넣고 검색하면 수돗물처럼 쏟아질 정도로 풍부하기에 새로운 문명사회를 이끌 요인은 결코 아닌 것이다.

동양철학을 바탕으로 한 필자의 오랜 연구에 의하면, 산업사회는 지식사회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었다. 르네상스 이후 눈부시게 발전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의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었고, 그로부터 산업사회는 지금껏 지구촌을 파도타기처럼 수놓아 오고 있다. 한때 산업사회 이후에 공산주의 사회가 온다고 하여 지구촌을 피로 물들

린 적이 있었지만, 작금에 벌어진 교육의 붕괴와 학력파괴 그리고 지식 대신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력을 갈구하는 것을 보면, 지식사회는 분명 오진의 소산이라 여겨진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력은 지식과 정보로 가득 찬 사람으로부터는 나오기 힘들다. 신선한 창의력은 명상을 통해 머리를 비운 사람들로부터 샘솟는다.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문명사회도 다른 모든 것처럼 '쌍생'의 짝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원시사회는 용맹사회와 짝이었고, 농경사회는 일손사회와 짝이었고, 산업사회는 지식사회와 짝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산업-지식 사회 이후의 새로운 문명사회는 깨달음을 기반으로 한 '한문사회', 즉 IT, NT, BT 등의 첨단기술에 의해 60억 전 인류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연결 진화되는 새로운 문명이 도도하게 전개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필자는 이에 대한 증명을 여섯 권의 책으로 정리하였으며, 최근에는 <한문사회>라는 책으로 종합해낸 바 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다수의 대중에게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의 지동설은 모깃소리처럼 왜소하고 약했는지 모르나 진리는 진리요 언젠가는 빛을 발했듯이, 산업사회 이후를 지식정보사회라고 믿고 있는 대다수 지식인들에게 언젠가는 '한문사회'가 진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필자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했던 갈릴레이의 말을 되뇌면서 '그래도 한문사회가 온다'고 확신하며 묵묵히 가련다. 



허신행 원장

1942년 생으로 서울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美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석사, 미네소타대에서 응용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농림수산부 장관, UR협상대표단 단장,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강원대, 건국대 등에서 초빙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현재 한문사회연구소 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아이디어가 기업의 운명을 바꾼다

1496회 4월 5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고졸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해 남들은 한 번도 힘들다는 특진을 무려 일곱 번이나 거듭하며 20여 년 만에 그룹 상무 자리에 오른 윤생진 상무. 아이디어 18,600건, 훈장 1회, 대통령상 5회, 사장표창 52회. 윤 상무는 돈도 학력도 배경도 없이 오직 맨주먹으로 시작했지만 특유의 꿋꿋한 에너지와 열정이 있었기에 스스로 세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다. 남들 같으면 은퇴를 바라볼 나이지만 그는 피땀으로 일궈낸 품질경영 분야에서 전국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로 우뚝 서겠다는 야심찬 꿈을 키워가고 있다.

21세기는 창조적 파괴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파괴할 수 있는 망치만 들면 된다. 결국 망치 같은 사람, 창조적 파괴를 서슴지 않는 펄떡이는 물고기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다. 윤 상무는 금호타이어 기능직 시절, 일본 유수 기계회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타이어 마지막 제조 공정을 10초씩 단축해 연간 20억원의 이익을 올렸다. 타이어에 미쳤고, 적어도 타이어에 대해서는 중공업 회사보다 더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도전한 결과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지 않고는 참지 못하는 정신이상자를 만들어야 기업이 산다는 신념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아이디어 왕' 윤생진 상무를 초빙하여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윤생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상무

조선대 졸업 | 금호-서울대 MBA | 1978년 금호타이어 입사 | 1980년 금호타이어 생산반장(최단, 최연소 반장) | 1994년 금호타이어 차장(대리에서 2계급 특진) | 금호산업 타이어사업부 품질경영담당 상무대우 | 신지식인운동본부 공동대표 | 성결대 북한문제 연구위원 | 조선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국가품질상 심사위원

(상훈) 석탑산업훈장, 제1회 전국 제안왕, 품질관리 대통령상, 한국최우수지식인상 대통령상 차
(저서) 윤생진의 아이디어만들기, 미치게 살아라



4월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환경은 21세기 반도체다

1497회 4월 12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20세기가 공해를 감수한 대가로 경제성장을 한 시기라면 21세기는 공해를 극복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루는 시대이다. 환경의 경제적 가치는 '21세기 반도체'에 비유할 수 있다. 환경이 곧 돈이라는 애기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는 말처럼 그 동안 경제발전의 걸림돌이나 기업활동을 위해 치르는 비용 정도로 인식됐던 환경이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핵심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고 친환경상품을 개발하고 환경에 투자하는 기업이미지를 구축하는 '환경경영'이 기업의 생존과 발전의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기업이 처한 환경의 위기가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환경을 살리는 일에 기업이 앞장설 수밖에 없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생태하천으로 서울의 명소가 된 청계천은 주변 상권 활성화로 특수를 누리고 있다. 하이브리드카를 개발해 성공한 도요타는 세계자동차시장 1위 자리를 넘보고 있다. 이처럼 기업은 이제 친환경 첨단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더욱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국내 환경운동의 선구자인 최열 대표를 초빙하여 환경산업의 필요성과 실상을 알아보고 기업의 '환경경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적극적인 환경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

강원대 농화학고 졸업 | 강원대 명예 철학박사 |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설립, 소장 | 환경운동연합 창립, 공동대표 | 환경마크협회 회장 | 에너지시민연대 상임대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 생명의숲 공동대표 | 서울시민포럼 공동대표 | 환경영화제 집행위원장 |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 | 강원대 겸임교수

(상훈) 제1회 시민인권상, 유엔환경계획 '글로벌 500인상', 골드만재단 '골드만 환경상'
(저서) 최열 아저씨의 우리 환경이야기, 살아 숨쉬는 것은 모두가 아름답다, 최열 아저씨의 지구촌 환경이야기



이재웅 명지대 경영대학 객원교수

서울대 법학과 졸업 | 고려대 법학 석사 | 美 롱아일랜드대 아씨 T.로스 경영학 석사 | 美 아메리칸대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 중앙대 경영학 박사 | 1955년 한국은행 입행, 외환 관리부장, 문서부장, 관리부장 | 은행감독원 부원장보 | 대우경제연구소(주) 사무국장, 상임고문 | 고려투자자문(주) 사장 | 고려증권(주) 부사장 | 고려종합경제연구소(주) 사장 | 숭실대 연구교수, 서강대 초빙교수, 고려대 연구교수 | 동아시아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상훈> 한국은행 총재 포상
<저서> 외국환 관리론, 국제금융의환정책론, 국제금융경제기구론, 글로벌 금융경영론, 글로벌 기업경영론 외

FTA와 세계경제의 변화, 그리고 아시아 금융통합의 과제

1498회 4월 19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지난 40년간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아시아의 비중은 배 이상 늘어 30%에 육박하고 있다. 그 동안 아시아 국가들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수출중심 전략으로 성장의 역사를 써왔다. 이는 보완적인 무역과 금융, 투자정책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시아의 수출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아시아의 성장이 미국의 경기순환 주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아시아 각국은 지역통합을 이뤄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최근 들어 아시아지역은 강력한 경제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이 급증하고 기업들간의 연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외교의 초점도 정치적 이슈에서 경제 및 통상으로 옮겨가면서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아시아 경제성장에 따른 금융시장 통합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나치게 달러에만 의존해온 체제를 대신할 '대안적 역내 환율체제' 나아가 아시아 공동통화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 5월 열린 제39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는 한중일 3국이 아시아 공동통화 출범을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데 합의하기도 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동아시아경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재웅 명지대 객원교수를 초빙하여 FTA 체결로 인한 세계경제의 변화를 전망해보고, 이로 인한 아시아 금융시장 통합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매주 목요일 07:00~09:00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 가는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 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길 서울대 미술대학 학장

서울대 응용미술학과 졸업 | 美 UCLA 디자인 석사 | 고려대 공학 박사 | 동덕여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 이화여대 디자인학부 교수 | 서울대 미대 디자인학부 교수 | 서울대 병원 환경색채자문단 자문위원 / 한국색채학회(KOSCOS) 명예회장 | 서울대 조형연구소 소장 | 컬러엑스포2005 대회장 | 한국홀로그래픽협회(KHAA) 회장 | 국회 공공디자인 문화포럼 공동대표 | 한국공공디자인학회(KSPD) 회장

<저서> 이제는 색이다, 기업.디자인.성공, 성공하는 기업의 컬러마케팅(공저), 색채와 디자인 비즈니스(공저), 한중일의 공간조영 외

색채와 디자인 비즈니스

1499회 4월 26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현대는 감성과 문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디자인의 중요도를 넘어 모든 것의 첫 이미지를 결정하는 색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의 눈은 다른 어떤 것보다 빛이나 색을 먼저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서도 제품간의 기술격차가 완화됨에 따라 디자인과 컬러는 제품구매의 결정적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결정 요소에는 기능과 소재보다 디자인과 컬러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영화 스크린 같은 TV, 회화를 입은 냉장고, 예술작품 같은 자동차, 갤러리를 닮은 백화점 등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현대는 디자인 필수 시대이다.

이러한 디자인과 색채의 중요성은 개인의 취향과 선호에 초점을 맞춘 상업디자인을 넘어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리의 간판, 시설물 등에도 공공의 유익함을 지닌 디자인과 색채가 가미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 디자인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디자인 부분이 취약하다. 이제는 상업디자인과 더불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공공디자인으로 시민을 위한 거리, 다시 가고 싶은 도시, 나아가 품격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서울대 미대 권영길 교수를 초빙하여 색채로 이야기하는 디자인과 이를 반영한 기업 제품들에 대해 알아보고, 공공의 분야에까지 확장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제1492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3월 8일(목)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

나는 한반도의 희망을 설계한다

김석철 명지대 건축대학 학장



중국의 등장, 흔들리는 분단체제, 지식산업사회 등장 우리는 100년 전보다 더 큰 변혁의 시기 맞고 있어

500년 동안 공간학적으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한반도가 큰 변혁을 맞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다. 국제사회를 향해 열린 5개의 항만(港灣), 그리고 서울과 항만을 연결하는 철도(鐵道) 부설을 시작으로 신작로(新作路)가 생기고 새로운 도시들이 만들어지는 등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한반도에 그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100년 전보다 더한 변화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 그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요인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강점된 이후 한반도에 영향력을 상실했던 중국이 다시 우리에게 현실로 등장한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지난 50년 동안 계속되었던 분단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내부분열과 6자회담 등 외세의 개입까지 이어져 그 동안 지속되어왔던 분단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세 번째 요인은 또 다른 산업혁명이라고 할 만한 지식산업사회의 등장이다. 결국 이런 세 가지 요인들로 인해 우리나라는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영조와 정조 이후 조선은 르네상스시기를 맞았지만 한반도의 새로운 하드웨어를 준비하지는 못했다. 당시 유럽에서는 근대 문명의 틀을 잡

은 국가적 하드웨어를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정조가 수원으로 수도를 옮기려는 계획을 잠시 시도했을 뿐 특별한 미래 준비가 없었다. 그러나 군사정부 하에서 고속도로, 국제공항, 항만 등 최소한의 국가적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 그 후 15년 동안에는 별다른 국가전략이 없었다.

자신만의 파이를 키워온 우리는 미래 준비 전혀 없어 국가 하드웨어 구축에 지식인들 나서야 할 때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지식인들이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민주 정부는 지식인들이 앞서서 정치인들을 계도하지 않으면 3류 정치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10년, 20년, 50년을 기획해야 하는 국가 하드웨어가 그때그때 대중들의 욕심에 맞추어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지식인들이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그런 것을 알고 공론을 펴야 한다.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과 지식인들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국가의 하드웨어를 만들어 남겨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동안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가 한 일이 없다. 대부분의 시장론자나 대기업에 속하는 사람들은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의 파이는 자신만의 파이이다. 국가 공공의 파이를 키워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한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행정수도과 혁신도시들을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행정수도건설이 잘되고 있는 건지 혹은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혁신도시는 과연 수습이 되는 일인지, 부동산 값은 언제 안정을 찾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 공동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다. 행정수도나 경부운하, 열차페리 등도 일부 교수들이 정치욕심에서 정치판을 기웃거리며 연구도 없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캐치프레이즈' 이다.

한중일 황해도시연합 형성이 한반도의 명운 좌우할 것

그렇다면 하드웨어를 생각하는 큰길은 과연 무엇일까? 아까 언급했던 중국의 등장, 흔들리는 남북체제, 지식산업사회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맞았을 때 한반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때는 한반도의 판을 남한 혹은 한반도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황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의 새로운 판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제 중국과 한국의 교류, 일본과 한국의 교역은 미국이나 EU보다 훨씬 크다. 때문에 나는 황해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동부 해안과 오사카 일대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서남 해안과 한반도가 이루는 새로운 경제공동체가 앞으로 한반도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우리의 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공동체를 생각할 때 한반도를 어떤 식으로 구조개혁할지 생각해 보자. 일단 부패한 정치권과 무능한 정치인들이 수도권과 지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연 그런 전략이 있기는 한 건지 우리가 나서서 검증해 봐야 한다.

전 세계 20개의 경제중심권역을 놓고 보면 미국 동부 해안과 유럽 서부 일대가 지난 세기 세계의 중심이었다. 물론 지금도 그 영향은 여전히지만 또 하나의 대등한 경제권역을 이루면서 세계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지역이 아까 말한 중국 동부 해안과 일본열도와 한반도 일대이다. 이곳은 세계 최대 자원국의 하나인 러시아와 중국, 미국 그리고 중국화교들이 지배하고 있는 동남아 일대와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세계에서 가장 요충지역이다.

이 지역은 EU와 같은 국가연합과는 다르다. 중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7~8개의 분권화된 경제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중국을 하나의 나라라고 보면 곤란하다. 우리가 다시 100년 전과 같은 중국의 변방이 되지 않으려면 중국 동부 해안과 한반도와 일본이 이루는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지금 중국은 동부 해안지대에 전체 경제력의 상당수가 집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집결된 힘을 동북 3성으로, 서부로, 내륙으로 보내는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문제와 남북의 문제, 일본열도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조선조 이전 황해 일원의 교역과 교류는 지중해 못지 않게 원활

했다. 특히 고려 때는 상당한 교역관계를 이루었다. 지금 현재 지린성, 라오닝성, 헤이룽장성 등 동북3성의 인구가 5억명이 넘는데, 이는 EU를 압도할 수 있을만한 경제권역이다.

우리가 중국을 하나의 국가로 생각하지 않고 각각 성 단위의 작은 나라를 상대한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하나의 권역을 유지하는 것은 언젠가는 미국과 중국이 맞닥뜨리게 될 파행적 질서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중국의 국가체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일부와 한반도와 일본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그러한 완충지대를 형성하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런데 앞으로 천양에서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황해공동체의 역할은 실제로 러시아가 개입하게 될 것이다. 결국 세계 질서는 에너지와 자원의 질서이다. 에너지와 자원이 지배하는 흐름을 보면 결국 한반도는 어떤 경우든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해 쪽으로 내려오는 러시아의 힘을 어느 정도 받는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러시아에서 동해와 일본에 이르는 황해도시연합을 'Grate Yellow Sea Union'이라고 하는 좀 더 큰 경제권역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도시개혁, 국토개혁은 장기적 안목으로 다루어야

그랬을 때 한반도를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가? 우선 한반도 수도권을 생각해 보자. 지금 현재 수도권은 사실 그들끼리 엄청나게 뒤엉켜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따로 되어있다. 지방 권역도 다르게 되어있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서울에서 60km 떨어진 곳에 개성이 있고, 43km 떨어진 곳에 인천이 있고, 그 밑에 수원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도시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재 베이징은 베이징과 톈진, 단산까지 연결하는 인구 3천만 정도 되는 경제권역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그 권역을 하나로 보고 공항, 항만, 학교 등의 전체를 개량하고 있다. 상하이도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지역과 그 일대의 인구 2~3천만에 이르는 곳을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묶을 계획을 진행 중이다.

도쿄는 이미 도쿄와 요코하마를 연결하는 전체 권역으로 3천 3백만 정도 되는 도시권역을 형성했고, 가와사키, 지바, 요코하마, 사이타마 등은 이미 하나의 도쿄화가 되어있다. 오사카도 역시 오사카, 고베, 나라, 교토를 하나의 도시권역으로 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정작 우리는 어떤가? 수도권이 너무 과밀하니 분산시켜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수도권을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00년 동안 한반도의 수도는 서울이었다. 사실 1000년 동안 한 국가의 수도였던 곳을 옮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이 아니다. 나는 행정수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것은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안 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또 만약 옮긴다 해도 과연 나가있는 것을 또 한 번 옮기는 그런 수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것조차 어려워질 것이고 우리는 그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수도권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도시를 제대로 경영하는 일은 20년, 짧게는 10년이 걸린다. 우리가 보는 파리는 중세의 파리가



아니다. 나폴레옹 3세가 뜯어고친 근대의 도시이다. 이처럼 강력한 독재 정부 하에서조차도 도시개혁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10~15년이 걸렸다. 결국 도시개혁이라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정치 사회적 변혁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서울시장 등이 임기가 끝나 가는 시점에서 10년, 20년 후의 정책이나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이 나에게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들은 취임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일을 하게 된다. 그런데 4년 임기로 출마해서 40년 걸릴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다. 도시 경영, 도시 건설은 한꺼번에 도시 전체를 개량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를 움직여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체 계획을 끊임없이 세워 나가는 것이다. 즉, 어떤 큰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만들되 그것이 움직일 수 있는 몇 군데를 만드는 것이다.

<수도권 전략>

4대문 안 서울 얼굴 만들기, 서울의 서쪽 개발, 대학 중심의 강북 르네상스

그래서 나는 서울 전체에 대한 비전을 생각하면서 몇 개의 지역에 도시 사업을 생각했다. 그 당시 8개를 제안했는데 그 중 몇 가지 개략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자면 그중 첫 번째가 '4대문 안 서울'이다. 당시 4대문 안 서울을 제안했을 때 서울의 얼굴이 될 만한 곳을 하나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었다. 그것이 경복궁에서 남대문에 이르는 서울 가로다. 그래서 경복궁 앞에 광장을 만들고, 시청 앞 광장을 만들어서 그 대로를 사람들이 걸어서 움직이도록 했다. 이것이 남대문 광장을 만들어서 서울역까지 잇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는 동양에서

드물게 역사의 유적이 남아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 일대를 '히스토리 코트(history coat)'로 만들자는 이야기였고, 세 번째가 청계천을 복원하자는 것이었다. 네 번째는 세운상이 일대의 계획인데, 서울에서 정도 당시 풍수지리의 기가 남아있는 곳이 응봉에서 남산에 이르는 세운상이 일대이다. 그래서 이 흐름을 이어 나가려는 것이 그 계획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동대문 일원의 계획인데 동대문에서 장충단까지를 서울의 창조적 신산업 지역으로 만들자는 계획이었다.

나는 예전에 도시계획부에 있었는데, 종묘~남산간 마스터플랜을 하고, 김포공항 마스터플랜을 한 이후에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했다. 그리고 그 사이 한강 마스터플랜도 했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동부이촌동에 일부가 있었을 뿐 한강변에는 토지가 없었다. 길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때 여의도를 만들고, 압구정동을 만들고, 반포를 만들고, 잠실을 만드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때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동쪽은 개발이 됐지만 서쪽은 군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다.

현재 한국의 경제력 수준으로 보아서 강남 땅값의 이상현상은 이상현상이 아니다. 강남은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장착된 인프라의 양이 적다. 그러니까 폭등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500만이 강남에 살면서도 강서쪽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중심축인 경부선 축을 볼 때 서울의 근본적인 인프라는 동쪽보다는 서쪽에 더 많이 투자되어 있다. 그래서 서쪽에 가능성이 있다. 외곽에 신도시를 만들어서 될 까닭이 없다. 강남과 같은 것을 대체할만한 자리는 서쪽에 있다. 강남을 대신할만한 등가의 가치를 가진 땅을 공급해야 한다.

내가 '강북 르네상스'라고 한 것을 보면, 사실 강북이 강남보다 못하게 되고 개발이 안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의 이동이다. 이름 있는 대부분

의 중·고등학교들은 강남으로 이동했다. 관공서가 이동하고 기업이 이동했다. 그런데 아직도 이동하지 않은 것이 바로 대학이다. 본래 대학이 있는 곳이 좋은 곳이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결국 지식산업사회에서는 대학 인구가 이 사회를 이끌어 간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껏 한다는 일이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나 짓고 있다. 강북의 집값을 강남 정도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현실성이 없다. 그것보다는 이러한 대학 중심의 산업을 일으킨다는 차원에서 정책을 펴야 한다.

〈지방권 전략〉

낙동강도시연합, 금강-새만금 여반 클러스크, 호남의 신천지 전략

우리는 지금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계속 아파트를 짓고 있다. 분당과 일산을 자족도시라고 하는데, 그곳에 사는 성인 남자의 80%가 외부로 나오는 곳이 자족 도시인가? 자족도시라는 것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사람들은 학교있고, 병원있고, 슈퍼마켓 있으면 자족도시인줄 아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인구가 1백만명이나 되지 만 대표적인 불완전 도시이다. 그런 도시들이 우리가 지방권을 이야기 할 때 논의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방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수도권에 기대지 않고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세계화가 가능한 지방권역으로 재조직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을 3~4개 정도의 자립 가능한 권역으로 재조직하는 것이 지방권 자립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맘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자립이 아니다. 할 수 있는 스케일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 인구 500만 이상 되는 권역일 때 자립 가능한 경제권역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태리나 독일이 자립 가능한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이다.

대구 주변의 포항, 울산, 구미는 세계적인 산업도시이다. 특히 울산의 산업력은 세계 최고에 달한다. 그리고 경주같이 제대로 된 역사도시가 드물다. 이러한 도시들의 모도시가 대구이다. 대구에는 엄청난 수의 대학 인구들이 몰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오히려 주변도시보다 더 못사는 곳이다. 대구가 중심이 되는 도시연합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포항제철의 본사도 서울에 와있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이 모두 서울에 의존하고 있다. 도시가 이런 상황이면 이곳에 무엇을 투자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 대구를 중심으로 한 도시연합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부산항이 차지하고 있는 입지는 세계의 항구 중에 최강이다. 그런데 세계의 큰 물류가 움직이는 주 항로 안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은 간단한 환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일본이나 중국이 더 큰 항만을 만들면 역할이 없어질 수도 있다. 노트르담은 물류가 부산항과 비슷하지만 부가가치는 부산의 8배이다. 부산항이 단순한 항만이 아닌 노트르담 같은 산업항이 되기 위해서는 부산항과 낙동강을 잇는 700만 정도의 경제권역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안링크를 만들어 나가면 그만큼 정도의 유럽 어느 국가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지방을 그런 스케일로 키웠을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고 이런 것을 전제로 혁신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행정도시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자. 행정도시를 옮긴다고 하면 과천에 있는 정부청사와 비슷한 20~30만평 정도면 충분한데, 1000만평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중앙행정부처만 옮긴다면 그 이상은 필요 없다. 지금 옮기겠다는 것은 결국 과천종합청사인데, 과천에 정부청사가 이동한 후 달라진 것이 뭐가 있나? 결국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나는 부여에서 공주 사이의 길과 부여에서 금강으로 이어지는 길, 만경강 일대와 새만금 일대를 연결하면 나름대로 대전과 더불어서 상당히 강력한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을 때 그 권역의 중심도시가 되는 것으로 전환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호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영남의 공업화를 뒤따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호남 전략은 신천지를 만드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 사람들의 자본이 들어와 살게 하는, 한반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호남의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인구를 대치해야 한다. 뛰어난 사람을 오게 해야 한다. 그런 인구정책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신천지 계획이다.

중국이 썬샤담을 만들어서 양쯔강을 개혁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중국의 농촌과 도시, 대도시와 소도시를 집합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했는지 생각해 보자. '리조트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호남 일원에서 하고자 했던 것이다. 단순한 관광산업이 아니고 농촌이 잘 살기 위해서는 농업의 산업화, 기계화, 창조산업화가 이루어져 소득 1만불을 달성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조업이 있어야 한다. 창조적 신산업이라는 형식에 제조업이 더해져서 1만불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 이후에 그 1만불로 관광에 힘쓸 때 잘 사는 지역이 되는 것이다. 호남 일원에 30조원을 투입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기 이전에 사람이 살만한 곳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농업이 살아야 하고 제조업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이제 한반도의 희망 프로젝트를 설계해나갈 때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었던 여의도는 그 당시 우리들의 이상적인 안이 실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30년 뒤 인천공항 옆에 '우리가 만드는 희망의 한반도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새로운 21세기 신도시의 도안을 그리고 있다. 1999년에 영종도 공항이 결정이 났을 때 나는 베네치아에서 국제회의를 하면서 그곳에 라스베가스를 가져오는 계획을 하자고 발표했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카오를 다녀왔는데, 그때 내가 끌고 오려고 했던 것을 이미 마카오가 끌고 간 것을 보았다. 이미 라스베가스보다 큰 것을 마카오에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기회를 뺏기고 있다. 행정수도니 혁신도시니 무의미한 일들을 하느라고 정작 해야 할 때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군인들은 미래를 생각하지만 정치꾼들은 오늘밖에 생각 안 한다. 그 결과 15년이란 귀중한 시간이 그냥 흘러간 것이다. 하지만 오늘 강의가 아직 한반도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인생의 황혼기, 새로운 꿈을 향해 뛰어가는 식지 않는 열정

한승수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위원장



사진 오경근 촬영

"인생의 4단계에서는 국경을 넘어 인류의 미래와 전 지구적인 문제, 그리고 비정체적인 분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평창유치위원회 역시 초당파적인 기구로 스포츠를 통해 사회와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죠. 그리고 유치위원회 일이 끝나면 고향인 강원 도내 초중고등학교들을 방문하면서 학생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훗날 단 한 명이라도 제 이야기가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고 말해준다면 그 또한 인생의 큰 보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루 네 번 강을 건너고 30리 길을 걸어야만 학교에 갈 수 있었던 험한 산골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한승수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18년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3선의 국회의원, 상공부 장관,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주미대사, 유엔총회의장 등 그의 경력은 누구보다 화려하다. 한 위원장이 3명의 대통령을 보좌하며 수많은 고위공직을 두루 거칠 수 있었던 것은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선비정신'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정치와 공직에 있으면서도 늘 자신은 '잠시 정치에 몸담고 있는 학자'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런 그이기에 은퇴 후의 '낙향은 공급자중심의 정치적 낙향이 아닌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수요자중심의 낙향'으로 그의 의미가 크다.

한승수 위원장은 2014년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개최되면 88서울올림픽을 능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렇기에 평창 유치를 위한 그의 노력은 실 틈이 없어 보인다. 7월 4일 IOC총회장에 올려 퍼질 한 마디, '평창'을 위해 외교현장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발휘하고자 남은 유치활동 기간 30개국을 방문할 일정을 잡고 있는 그는 연일 언론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자서전과 전기 수집이 좋아 매일 써온 일기를 회고록으로 출간할 예정이라는 한승수 위원장을 3월 20일 그의 집 무실에서 만나 동계올림픽 준비상황을 들어보고 학자로서 또 공직자로서 지내온 삶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담: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사진 오경근 촬영

한승수 위원장

1936년 생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요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0년부터 18년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88년 이후 상공부 장관, 주미대사, 대통령비서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등 관직을 두루 거쳤다. 제13, 15,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제56차 유엔총회의장으로도 활동했다. 현재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위원장 외에도 춘천문화진흥재단 이사장, 한국물포럼 총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IOC 평가단이 평창 실사를 마치고 돌아갔는데요. 이번 실사는 지난번보다 좋았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전체적인 실사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IOC실사는 잘 받았고 평가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가야 IOC평가위원장은 떠나기 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평창유치위원회의 신청파일이 훌륭했고 프리젠테이션 수준도 아주 높았다고 만족감을 표시했어요. 또한 평창과 강릉을 중심으로 한 콤팩트한 경기장 건설로 이동거리가 30분 이내라는 것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이 평가단에게 깊은 인상을 줬다고 하더군요. 특히 실사가 이어지는 동안 보여준 평창군민과 강릉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분위기가 평가단에게 큰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도 강화되고 시민들의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평창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하는 차별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경쟁도시와 비교해 어떤 점을 평창의 강점으로 여기시는지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평창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러시아 소치와 함께 유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도시에 비해 평창이 갖는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우선 분단국가의 유일한 분단 도(道)인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면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증진시켜 올림픽의 이상인 평화를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동북아, 세계평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세계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아시아에 올림픽운동과 동계스포츠를 확산시킬 수 있어요. 동계올림픽은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일본 삿포로와 나가노 두 곳에서만 열렸는데, 평창에서 개최되면 아시아지역에 동계스포츠를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강원도 지역을 개발시켜 위대한 올림픽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평창은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유비쿼터스 올림픽을 개최하고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추진해온 '드림프로그램(눈이 없는 나라의 소년소녀들을 초청해 동계스포츠를 가르

쳐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 지구적으로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역할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일부 동계 종목이 세계 수준에 뒤져있는 등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 문제가 걸림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사실 이가야 IOC평가위원장도 지적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동계스포츠 선수들의 기량증진을 위해 정부, KOC, 강원도 등이 함께 노력해야겠죠. 그럼에도 지난해 토리노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 1월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종합 1위를 한 것을 비롯해 3월에는 쇼트트랙 선수들이 밀라노에서 대활약을 펼쳤죠. 스피드스케이팅의 이강석 선수는 솔트레이크시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500m 세계신기록을 세웠고,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는 세계 정상에 다다르고 있어요. 또 지난 장춘동계아시안게임에서 남녀 컬링팀이 금메달을 따는 등 선수들의 질과 저변확대도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발판 삼아 정부와 KOC 그리고 각 동계경기단체 등이 앞장서서 동계스포츠의 저변확대와 선수 질 향상, 그리고 비인기종목에 대한 관심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창 유치가 확정된다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유치효과는 가시적(tangible)효과와 비가시적(intangible)효과가 있습니다. 가시적 효과는 국내연구소들의 추산으로 대략 생산유발효과가 15조원, 고용유발효과가 20여만명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적으로는 원주와 강릉을 연결하는 복선전철이 건설되고, 민자로 제2영동고속도로가 건설되며, 지역의 국도와 지방도로가 확장되어 지역발전에 기록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대단할 겁니다. 우리는 88서울올림픽을 통해 발전하는 한국의 참모습이 세계에 보여지고 한국의 이미지가 상승하는 한편 수출상품의 브랜드가치가 크게 올라갔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2014년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한국의 이미지가 상승하면서 정보통신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3대 스포츠행사인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을 모두 개최한 나라는 미국, 독일, 이태리, 일본, 프랑스 등 5개국에 불과해요. 이에 한국은 동계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스포츠신진국에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할 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서울올림픽이 남긴 것 이상의 감동을 주게 될 겁니다. 이로 인한 한국의 이미지와 브랜드가치 상승은 말할 것도 없겠죠.

어찌 보면 실사가 유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후 7월 결정 때까지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며 남은 기간 유치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7월 4일 IOC총회에서 유치가 결정되기까지는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성공적인 실사과정도 마쳤고, 경쟁도시인 잘츠부르크와 소치도 실사를 끝냈으므로 이제부터는 평창의 장점을 더욱 활발히 홍보하고 IOC위원 개개인들의 마음을 잡는 일만 남았네요. 앞으로 중요한 국제경기단체 모임에 참가해 평창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4월 말 북경에서 열리는 스포츠어코드(SportsAccord) 회의에는 전세계 IOC위원들이 다수 참석하고 세계의 언론인들도 대거 모여들 겁니다. 그곳에서 왜 2014동계올림픽을 평창에서 개최해야하는가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생각이죠. 또 CNN, BBC 등과 같은 국제매체를 이용해 평창을 홍보하고 세계의 주요언론들을 찾아 평창을 선전하는 것도 중요한 유치활동의 하나가 될 겁니다.

동계올림픽유치위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요. 활동하시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시겠죠.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때는 제가 국회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했죠. 그러다 2004년 정계를 떠난 후 비교적 자유로워지면서 스포츠와 같은 초당적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구나 제가 강원도 춘천 출신이기에 우리지역의 발전에 미력이나마 힘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인연을 맺게 된 겁니다.

현재 유치활동은 IOC위원들과 식사는 말할 것도 없고 개별접촉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IOC위원이 있는 나라의 주요인사들을 개인적으로 잘 알면 그분들에게 간접적으로 부탁하는 거죠. 다행히 제가 유엔총회 의장을 하는 동안에 우의를 다졌던 국가정상이나 유엔대사들이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성사된 것도 몇 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 어느 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람을 느낍니다.

9.11테러가 일어나던 날이 유엔총회 의장으로 임명되기로 한 날이었다고 하던데요. 그 때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제56차 유엔총회는 2001년 9월 11일 오후 3시에 의장을 선출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그 날 아침 8시부터 유엔본부 4층에서는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조찬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범에 납치된 두 대의 비행기에 의해 폭파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와 설교를 듣고 조찬을 하고 있는 중에 비서실장이 메모지를 전해주더군요. 메모지에는 "The World Trade Center is Burning(세계무역센터가 불타고 있습니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유엔빌딩이 다음 테러의 대상이라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유엔빌딩에서 모두 철수하고 그날은 의장 선출을 못했죠. 9월 11일의 뉴욕은 숨막히는 절망의 도시였어요. 결국 다음날인 9월 12일 제56차 유엔총회의장 선출은 삼엄한 경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1년 9월 11일은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의장이 없는 날로 기록되었죠. 그 날 메시지를 전달했던 의장 비서실장이 바로 지금의 반기문 유엔사무총

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서는 그 동안 정치, 외교, 경제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치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이나 보람이 있었다면 어떤 것입니까.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중요한 여러 자리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죠. 그 동안 함께 고생했던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거친 자리 하나 하나가 국가운영과 관련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를 선택해준 국민을 위한 정치활동이나 맡겨진 행정의 운영에 있어서 조직의 목표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멸사봉공(滅私奉公)의 길을 충실히 걷기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제56차 유엔총회의장을 맡았던 1년간은 큰 보람의 시간이었습니다. 9.11테러 와중에 출발한 56차 유엔총회는 그야말로 위기의 연속이었죠. 그러나 그 위기를 슬기롭게 관리하고 유엔총회를 역대 어느 의장보다도 훌륭하게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총회활성화 작업을 위해 일한 것은 오래도록 기억되는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유엔에 가입하고 불과 10년만에 의장을 배출한 한국의 외교관들이 국제무대의 중심에서 우리나라보다 활동 역사가 훨씬 오랜 여러 나라의 외교관들과 어깨

를 겨누면서 그야말로 실력을 한껏 발휘했던 시기였죠. 당시 유엔총회 첫 결의안인 테러규탄에 관한 결의안이 총회의장실 소속 한국외교관들에 의해 주도되고 결정되는 현장에서 'observer'의 설움을 수십 년간 인내해야 했던 우리 외교관들의 감동과 감회는 필설로 이루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 제56차 유엔총회의장 시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한승수 위원장

위원장님의 업적을 살펴보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삶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공직을 두루 경험할



■ 지난달 20일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 서울사무실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한승수 위원장과 장만기 회장

수 있었던 원동력이나 위원장님만의 철학이 있었을 듯 합니다.

공직생활에 임하는 제 철학은 늘 선비정신이 기초였습니다. 비록 정치와 공직에 봉사하고 있었으나 항상 '잠시 정치에 몸담고 있는 학자로 생각하며 행동했죠. 저는 18년간의 서울대 교수를 그만두고 1988년 고향 춘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 관직에 나갔습니다. 학계에서 바로 각료로 입각한 게 아니죠. 국민들의 고충과 고통을 몸소 체험하고 나서 정부의 주요직책을 맡은 겁니다. 정치나 행정에서 항상 국가발전과 국민복지는 제 활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솔선수범하고 공평무사(公平無私)하고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인사정책으로 관료사회의 사기를 높여 공무원들이 스스로 조직목표에 합당한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사회 원로의 한 분으로서 은퇴 후의 인생 계획도 궁금해집니다.

지금 저는 제 인생의 4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어요. 1단계는 준비하는 단계로 학교에서의 배움의 시기였죠. 2단계는 영국에서의 5년을 포함해 23년간 학계에 있으면서 자기계발과 함께 학계에 공헌하고자 노력한 시기입니다. 3단계는 정치, 행정의 시기로 3선 국회의원 활동과 세 번의 대통령을 모시며 유엔총회의장으로까지 활동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4단계가 정치 은퇴 후 현재 하고 있는 스포츠 관련 분야입니다. 여기에 전 지구적인 문제인 물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한국물포럼'을 조직해 총재로도 일하고 있죠. 그 동안 유엔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국경 안의 일이었다면 이제는 국경을 넘어 인류의 미래와 전 지구적인 문제, 비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앞으로 15년 정도는 이런 활동을 하며 지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안 매일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그 중 유엔총회의장 시절의 일들을 정리해 <유엔총회의장 1년>이라는 회고록을 미국에서 출판할 계획입니다. 제가 전기나 회고록을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요. 또 하나의 일은 강원 도내 각 초중고등학교를 돌며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는 겁니다. 유치위원회 활동하기 전까지 해오던 일이었는데 지금은 바빠서 못하고 있죠. 인생의 선배로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중 단 한 명이라도 훗날 성공해서 제 이야기가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해준다면 그 또한 인생의 보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왕성한 활동과 정열이 위원장님의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취미생활은 무엇인지요.

자동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험한 산골 시골에 살면서 어려서부터 많이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춘천시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통학하려면 큰 강을 왕복 네 번이나 나룻배로 건너고 하루 30리는 걸어야 했죠. 이것이 습관이 되다보니 걷는 걸 즐기게 됐고 그 후 취미도 등산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등산보다는 매일 아침 5~6km를 속보로 걷고 있죠.

초등학교 때 식객들을 데리고 뛰시던 할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바둑은 아마추어 5단 정도로 지금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서전과 전기 수집은 그 동안 그 양이 꽤 많아져 시간 나는 대로 이 책들을 읽으며 앞서간 훌륭한 분들의 시대를 그려보는 독서삼매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적절한 운동과 취미생활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창립 32주년을 맞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강사로 활동하시는 등 연구원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인간에게 두고 지난 32년간 이들의 질적 향상에 전력하면서 우리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제조업기반 경제를 넘어 지식기반 경제에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발전의 요인으로서 고급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이와 같은 우리나라 경제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인력에 대한 특단의 투자와 꾸준한 고급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잘 관파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훌륭한 기획과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고급인력 개발과 발굴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정리 · 정용달 팀장 dal2020@khd.or.kr

독서경영 오픈세미나

창조경영, 두바이에서 배운다

'두바이를 보기 전에 창조경영을 논하지 말라' 두바이를 다녀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말이다. '상상력의 제국'을 지휘하는 지도자 셰이크 모하메드의 통찰력과 창의적인 리더십이 바다 위에 호텔을 짓고 사막에 스키장을 세우는 불가능의 목표들을 실현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3일 SH공사 2층 대강당에서 본원 회원 및 회원사 직원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독서경영 오픈세미나에서는 중동 현지 특파원과 국내 기업인이 바라본 두바이의 변화상을 통해 기업경영의 창조적인 안목을 키우는 자리로 성황을 이루었다. 이에 강연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SESSION 1

두바이의 무한 상상력과 창조적 리더십과 중동의 이해

서정민 특파원, 중앙일보 중동 전문기자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사슴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잡혀 먹히지 않기 위해 빨리 뛰어야 한다는 것을 머리에 되새겨야 한다. 같은 공간에 사는 사자는 눈을 뜰 때마다 굶어죽지 않기 위해 사슴보다는 빨리 달릴 수 있어야 함을 매일 깨닫는다."

두바이의 통치자 셰이크 모하메드는 그의 자서전에서 누구든 최선을 다해 뛰지 않으면 죽는다는 적극적인 생존전략을 취하고 있다. 아랍어로 '메뚜기'라는 뜻의 두바이. 20세기 초만 해도 인구 3천명에 불과했던 작은 어촌마을 두바이는 이제 아랍의 홍콩, 사막의 뉴욕으로 불리며 더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기 위해 다리에 힘을 기르고 있다.

"두바이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 '더월드', '더 팜' 등 4개의 인공섬은 달에서도 보인다. 다양한 해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면서 지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두바이에서 지도를 사면 '공사중'이라는 표시가 붙어있다."

우리는 두바이를 통해 '아이디어가 돈'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두바이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Do Buy!' '꼭 두바이에서 사라!'는 강조와 함께 두바이가 무역, 교통, 관광의 중심지라는 의미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두바이에서는 부동산, 이벤트도 하나의 산업이다. 어떤 목적에서든 부동산을 구매한 외국인들은 두바이를 방문하게 된다. 즉, 부동산 구매와 관광산업이 연결되고, 이것은 경제를 유지하고 서비스산업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두바이에서는 매주 국제적 이벤트가 개최된다. 이벤트 개최를 통한 호텔, 항공, 체제비 등의 수입이 엄청나다. 그러나 무엇보다 두바이 프로젝트의 숨은 원동력은 금융산업이다. '더 게이트' 금융센터에서는 외국인의 은행설립을 허가해 주는데 빠르면 하루, 늦어도 일주일이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언론의 못매를 맞는 대상이지만 두바이는 이조차도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융산업이다. 중동의 자금이 두바이로 몰리자 많은 금융사들이 몰려들었고 정부는 주저 없이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그들을 받아들였다.

이처럼 두바이는 철저한 실용주의정책으로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두바이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3多3無'이다. 타워크레인, 고층빌딩, 외국인이 많고, 세금, 비자, 범죄가 없음을 뜻한다. 이제 두바이 사람들은 일을 미루고 종교에 의지하던 마인드를 버리고 정확하고 완벽한 일처리를 추구한다. 이 같이 철저한 실용주의정책으로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두바이신드롬'은 중동 각국으로 퍼져 이슬람법에 엄격하던 그들을 개방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두바이의 지도자 셰이크 모하메드이다.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과 존경심은 절대적이다. 실제로 석유의존 경제에서 탈피하고 있는 그의 경제발전 계획은 전반전까지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에게는 뛰어난 전략가적 기질이 있으며, 타고난 리더십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

"셰이크 모하메드의 경제전략은 최고를 위한 도전, 무한한 상상력, 말과 같은 추진력으로 함축된다. 그가 주장하는 지도자의 5대 덕목은 비전, 리더십, 매니지먼트, 팀워크를 통한 인간개발, 단호한 디지전 메이킹이 그것이다."

그러나 두바이에도 어두운 면이 존재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70%가 외국인인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현지인과의 차별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낙타경주를 위해 인신매매로 5천명의 어린이를 낙타기수로 쓴 일은 인권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기에 늘 테러의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테러조직에 자금을 댄다는 의혹은 쉽게 지울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 큰 문제는 '아랍상인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이다. 두바이에는 제조업이 없다. 사람들은 부동산과 장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것을 극복하는 일이 두바이가 후반전에서 성공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우리가 두바이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분명하다. 확고한 미래전략 수립이다. 우리는 아직도 30년 전에 수립된 미래전략에 의존하고 있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중국은 지금 아프리카의 석유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질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취득하는 것이 미래전략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SESSION 2

한국의 기업들은 두바이를 어떻게 배우고 활용할 것인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미래의 먹줄거리를 찾아보기 위해 사장단과 함께 두바이를 다녀왔다. 우리는 그 동안 따뜻한 물에만 있었다. 이러면 변화를 꾀할 수 없다. 4일간 두바이에서 보고 느끼고 토론한 결과 두바이는 상상과 꿈을 현실화시키는 곳이라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셰이크 모하메드가 있다."

웅진은 지난 26년간 IMF 한해를 제하고는 꾸준히 성장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이 아니면 한국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앞으로 100년을 내다봐야하는 것이다. 그렇게 미래의 비전을 찾아 떠난 기업인의 눈에 두바이는 창조력으로 일군 탄탄



한 기업이었다.


두바이의 상상은 부르크 알 아랍 호텔에서부터 시작한다. 호텔 인테리어에서 금기시 되던 강한 색과 강한 색의 조화는 디자인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계 최고의 호텔임에도 적자를 면치 못하지만 부르크 알 아랍 호텔은 두바이의 상징물로 변화의 서막을 열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빨리 도착하고 싶다면 속도를 내면 된다. 그러나 무조건 속도를 낸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얼마 가지 못해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노련한 운전기사가 좋은 차를 가지고 속도를 낼 때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안전하면서도 빨리 도착할 수 있다."

진정한 '속도경영'을 볼 수 있는 곳이 두바이다. 두바이에서는 공사계획이 나오면 바로 실행에 옮긴다. 3일에 한 층씩, 1년이면 수십개의 빌딩이 올라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속도를 내긴 하지만 어떻게 내는지, 누굴 시켜서 내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셰이크 모하메드의 생각은 무엇이든 세계 최고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삼성에서 건설중인 160층 건물도 얼마나 더 올라갈지 건설현장에서조차 모르고 있다. 세계 최고가 있다는 것은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세계 언론의 관심으로 이어진다."

두바이는 돈을 들여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라는 상상과 꿈을 실현시킴으로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그렇기에 언론이 먼저 나서서 기사를 만들고 두바이 홍보에 열을 올린다.

우리가 미래의 먹줄거리를 찾기 위해 두바이를 찾았던 것처럼 두바이는 미래의 먹줄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변화를 시작했다. 부족한 자원을 뒤로하고 세계 최고를 지향해 사람들을 불러모으기 시작한 것이다. 새로운 도전은 일정부분 반대세력을 갖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창조경영, 혁신은 한낱 꿈에 불과하다. 

정리 · 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kr



제9회 진천군 '생거진천혁신대학' 2월 20일(화)

세계화 시대의 친절문화 이렇게 바꾸자!

한상숙 탐서비스아카데미 원장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여 민선 4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금까지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개강해 매월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생거진천혁신대학'은 본원과 진천군(군수 유영훈)이 '21세기 중부권 거점도시로의 발전이라는 진천의 비전달성을 위해 새롭게 출발한 학습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진천혁신대학은 정보화·세계화·지방화시대를 맞아 공직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을 통해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기혁신 및 자기개발로 조직발전에 기여하는 열린교육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원과 진천군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적인 강연을 통해 진천의 지적 부가가치를 창출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지자체특강에서는 지난 2월 20일 "세계화 시대의 친절문화 이렇게 바꾸자!"를 주제로 제9회 강연을 해주신 한상숙 원장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고객만족 경영은 세계적인 흐름

오늘 '세계화 시대 친절 문화 이렇게 바꾸자'에 대해 말씀드릴텐데, 먼저 세계화 시대의 흐름이 어떤 지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은 고객만족 경영 시대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친절해야 되는가를 얘기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고객만족 경영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81년 스칸디나비아항공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1990년대 초반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가 바뀐 것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 포춘誌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100대 기업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선정된 100대 기업이 어떻게 해서 다른 기업들보다 빠르게 성장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어느 한 기업도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경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다른 기업은 어떠한? 세계적인 기업을 비롯해 어느 기업도 고객을 만족시키겠다고 하지 않는 기업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100대 기업에 선정되지 못한 기업들은 초점이 달랐어요. 어떻게 하면 매출을 더 많이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0대 기업은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을 만족시킬 지에 초점을 두고 경영을 하다보니 매출과 이익이 자연스럽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고객만족 경영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가 전자제품을 하나 이용하더라도 AS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한 지 아실 겁니다. 요즘은 AS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해졌어요. 심지어는 벨을 누르는 것까지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기업에서만 고객만족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한상숙 원장

1956년 생으로 중앙대 가정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항공 사내 서비스 매너 강사과정, JAL 서비스교육기관 서비스 매너 강사과정, 미 디즈니 월드 사내대학 인사 및 교육세미나과정, 한국전력연구원 전통예절강사과정 등을 수료했다. 대한항공연수원 전임강사, 삼성 에버랜드 서비스교육담당 과장, 2002 월드컵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교육위원 등을 역임했다. 중앙대, 고려대, 인천대 등에 출강했으며 경북대 초빙교수로도 활동했다.

서울의 25개 구청에 친절팀 내지는 친절 사내강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가을에 가장 많은 교육을 했던 곳이 법원이었습니다. 법원 교육 사례 역사상 이틀동안 고객만족과 친절 서비스를 강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법원까지도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작년 봄에는 국가정보원에서 많은 교육을 했습니다. 고객만족 경영과 이미지 관리 교육이었는데, 국정원이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에서 국민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이미지 변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연속되는 신뢰감은 고객만족으로 이어져 고객만족은 개인의 행복도 향상에도 기여

고객만족에 대한 정의를 보면 '고객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그 결과로서 상품서비스의 재구입이 이루어지고 그 기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진천군 저수지에 제가 낚시를 하러 옵니다. 왜 올까요? 인생을 즐기고, 맛있는 걸 먹으로 오는 겁니다. 진천군에 가면 저수지도 아름답고 식당의 음식맛도 좋고 아주 친절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 기대에 진천군이 부응한다면 계속해서 진천을 찾게 되겠죠. 그렇게 고객들의 신뢰가 연속된다면 이미 고객을 만족시킨 겁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군민들의 기대가 있을 겁니다. 요즘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많이 향상돼서 군민들의 기대 또한 높아졌습니다. 그런 기대감에 부응한다면 '역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진천군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야'라는 신뢰감이 연속되고 고객만족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제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 자리에 오셨든 제가 그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교육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저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게 신뢰감이 연속된다면 저는 제 고객을 만족시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 또한 '밥 먹고사



는데' 지장 없겠죠. 바로 이겁니다. 고객만족, 혁신은 지겨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수단을 딛고 넘어야 더욱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 분야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고객을 만족시켜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또 공직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군민들을 만족시켜야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마음과 달리 표현하지 않으면 친절 이미지 쌓을 수 없어
 배려와 서비스 문화의 부재가 만든 결과**

통계수치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겨레신문사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남에게 친절합니까?'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국민 80%가 '나는 친절합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를 왜 했을까요. 한국인을 접해본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은 불친절하다, 매너가 없고 거칠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우리는 정 많은 민족에 동방예의지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지 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고쳐보자는 의미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랬는데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0%가 넘는다면, 그 나라는 정말 친절한 나라로 소문이 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래서 언론사에서 수치를 두고 고민하다가 다시 검토한 후 결론을 내렸습니다. 질문이 잘못됐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문을 하면서 '당신은 친절하고 예절바르는데 남들도 당신에게 그렇게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결과는 역시 80%보다 낮았습니다. 이 얘기는 한국인은 적어도 80%는 남에게 친절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 민원인, 외지 분들에게 진천군 공무원들이 친절합니까 하고 물었

더니 많은 분들이 보통이라고, 점수로로는 50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친절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50% 밖에 친절하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30%의 갭이 생기는데, 이 갭만 없앤다고 해도 진천군은 정말 친절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갭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마음은 따뜻한데 왜 불친절하게 보일까요. 문제는 마음은 따뜻한데 그것이 표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얼굴로 표현이 안 돼요. 두 번째 이유는 상대를 배려하는 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고객만족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고객을 더 만족시킬 수 있을지의 첫 번째 키워드는 고객의 입장이 돼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친절도 잘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서비스 문화 때문입니다. 마음은 친절하고 싶는데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서비스 문화를 접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우리의 서비스 문화가 미천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서비스다운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미소, 인사성, 동작, 말씨, 용모 두루 갖춰야 친절 이미지 남길 수 있어

그렇다면 친절한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 이미지를 형성하려면 크게 다섯 가지를 잘 하면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소만 짓는다고 다 좋은 표정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표정은 상대가 지금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를 읽어주는 표정이죠. 그렇다 해도 대부분의 표정은 미소만으로도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인사성이 밝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밖에 비가 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한 마디 하는 거죠. "밖에 비가 오는데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가시는 길에도 "빗길에 조심히 가세요" 이런 한마디가 '우리 공무원들 너무 친절하다'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동작이 중요합니다. 저는 대한항공에 있다가 삼성 에버랜드에서 직장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옮기면서 업무상으로 어려움을 느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가르치던 서비스를 그대로 가르치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가서 보니까 얘기가 달랐어요. 에버랜드 전신이 자연농원인데, 이 회사의 원래 이름은 중앙개발입니다.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관리하는 회사로 분명 서비스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서비스에 대한 기본도 없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교육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연농원에서 미화 담당 아주머니들을 일주일씩 교육하면서는 걸음걸이부터 작은 손동작까지 교육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들이 길을 물으면 이전에 아주머니들은 자연스럽게 청소하던 빗자루를 흔들며 가며 길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철저히 가르쳤죠. '누군가 물어보면 반드시 그 사람의 눈을 본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창을 한다. 그리고 오른손에 있는 빗자루는 왼손으로 옮기고 손가락 다섯 개를 모아서 그 쪽을 바라보고 가리켜 드린다. 그리고 손을 내리면서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알아들었는지 확인한다' 이런 식이었죠. 특히 손가락 다섯 개를 모을 때는 반드시 손을 뒤집어 물 한 두 방울 엮어질 정도로 구부리라고 했어요. 이렇듯 친절은 한마디로 '표현'입니다. 표현되지 않으면 친절하지 몰라요. 우리의 문제는 표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 동작도 잘 해줘야 친절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네 번째는 말씨입니다. 민원인 중에 아이를 데리고 오신 손님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한 마디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아이를 칭찬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친절은 제가 이렇게 교육해주는 내용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너무 당연한 겁니다. 본원적 서비스죠. 이것 말고 플러스 알파의 서비스, 바로 감성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걸 해줘야 친절함이 완성됩니다. 사람들은 감성서비스를 원해요.

마지막은 용모, 복장으로 이것 또한 친절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인의 웃음은 유교문화에 기인된 절제된 웃음

웃음이 주는 행복은 결국 운명도 바꿀 수 있어

한국인의 표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인의 표정은 무표정이다, 무뚝뚝하다, 화난 얼굴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이 받죠.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 나가서도 그렇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인의 표정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교적인 문화 때문입니다. 유교에서 가르치길 군자는 얼굴에 희로애락을 담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남자의 바람직한 입모양은 한 일(一)자로 굳게 다문 입이며, 여자의 웃음소리는 담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서양인들이 개방적인 웃음을 지녔다면 우리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웃음을 지녔습

니다. 이런 문화 때문에 웃고 싶어도 쉽게 웃을 수가 없었죠.

그럼 서양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웃는지 같이 생활하던 미국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누구든 눈이 마주치면 웃어라' 하고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라면서 보니까 어른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 그건 당연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와 너무나 다르죠. 교육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의 표정도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럽인들은 어떻게 잘 웃을까 궁금해서 각종 문헌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럽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스마일 파워'라는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스마일 파워란 매력적으로 웃은 얼굴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보는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그 행복이 몇 배로 불어서 나에게 돌아와 나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니 잘 웃지 않을 수 없죠.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신데, 웃으면 건강에도 좋다는 건 다 아시죠? 웃으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나옵니다. 엔돌핀의 첫 번째 작용은 면역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하루에 15회만 웃으면 의사 만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소만 지어도 웃는 웃음의 90%의 엔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하는 것도 사실 고객을 위한 것도 있지만 첫째로 나를 위한 것이란 점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스탠포드대의 윌리엄 프라이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하루 세 번만 웃어도 우리 몸은 아침에 조깅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느낀다고 합니다. 운동을 해도 엔돌핀이 나오지만 웃었을 때가 운동 때보다 더 많은 엔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웃음이 좋습니다. 작년 초에 TV에서 이런 것을 방영했습니다. 가정주부들인데 뚱뚱한 분들에 A, B 두 그룹으로 나눠서 다이어트를 시켰어요. A그룹은 의사를 통해 다이어트를 시켰습니다. B그룹은 웃는 것만 시켰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면 박수를 치면서 '하하하' 하고 웃도록 시켰어요. 혼자 있을 때도 박수 치면서 웃으라고 시켰습니다. 또 집에 '웃음선'이라는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건너갈 때마다 웃게 했어요. 그랬더니 가족들 관계가 너무 좋아지고 편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두 달만에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를 만나면서 다이어트 한 팀은 평균 6kg이 빠졌습니다. 웃기만 시킨 팀은 평균 8kg이 빠졌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스트레스 수치가 의사를 만난 A그룹은 올라간 반면 B그룹은 확연하게 내려갔다는 겁니다.

미소만 잘 지으셔도 평생을 건강하게 살고 다이어트도 됩니다. 남들로부터 인기도 끌고 남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 행복이 몇 배로 불어서 나에게로 돌아와 내 운명을 바꿉니다. 이래도 웃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느 학자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가슴에서 손까지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또 어떤 학자는 내가 그래야겠다고 생각한 것을 평균 6~21일 동안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을 때 이것이 습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면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 친천군이 활짝 웃는 스마일 친천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칠 것입니다. 

사람은 목적적 존재인가 수단적 존재인가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올 산시에서 시작된 지방정부의 신구조조정 인사혁명 바람이 서울까지 불어오고 있다. 이 바람은 다시 부산으로 옮겨갔다. 이번 인사혁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은행까지 번져 전체 금융기관에도 그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치 IMF 외환 위기를 맞으며 일어났던 구조조정의 악몽 같은 대재난을 떠올리게 한다.

IMF위기와 함께 출범한 DJ정부에서 '정부 구조조정' 업무의 실제였던 인사와 오찬을 함께 할 일이 있었다. 그는 학연, 지연 등 온갖 인연을 동원해 자기만은 구조조정을 면하게 해달라는 청탁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정부투자기관에서 실력을 쌓아 온 그가 심지어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다고 했다. 인간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것만 같았다.

어떤 명목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인가. 무능한 공무원, 썩은 공무원, 외국어문맹공무원, 나이 많은 공무원, 부패성공무원 등이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했다. 어떻게 해서든 작은 정부를 만들어 공직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고 IMF위기를 최단시일 내에 극복하는 것이 DJ 정부의 당면과제였다. 또 정부인력의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금융, 노동조합, 기업의 구조조정도 추진할 수 있었다.

그의 마음에 쌓인 이야기를 들으며 새정부의 인사혁명정책을 비판하기보다는 '작은 정부'로의 정책을 인간적으로 풀어 가는 방법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국가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박봉에 시달리며 생활해온 인간적인 상황들을 헤아려 줘야 한다. 치솟는 교육비, 부동산가격, 그리고 한국 사회 특유의 경조사비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무원들은 검은 거래의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을 감안해 그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상처받지 않고 스스로 공직을 떠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과 전략을 순리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독점해왔던 일들은 과감하게 민영화하고 민영화한 업무는 공직을 떠난 사람들이 정부에서 익힌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기회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 자랑스러웠다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기

에는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데서 인간적인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다. 시대에 따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공무원으로서의 명예를 가지고 인생을 걸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식정보사회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높아진 생산성과 절약된 예산으로 공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듯 인간존중의 국가인재양성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오늘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나의 솔직한 의견을 제시했던 기억이 벌써 10년 전의 일이 되었다.

2007년은 대선의 해이다. 우리는 지난날의 악몽과 같은 정치현상과 리더십의 문제로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정부에서 시작된 인사태풍이 과거 중앙정부가 저지른 무지의 소산을 답습하지 않고 교훈으로 삼아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퇴출 위기를 느낀 공직자들도 자신들의 무능과 비생산적인 삶에서 오는 불이익을 어느 누구에게도 전가시킬 수 없다는 사실에 각성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사람은 목적적 존재이기에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 자존감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지금 지방정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사혁명의 태풍이 새로운 인간존중의 조직문화혁명으로 자리잡길 바란다.

우리는 지금 인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공포감과 위협으로 일하게 하는 전근대적인 동기부여 방식으로는 사람들을 바르게 리드해 갈 수 없다. 능력급 성과급의 기본이 되는 인센티브 방식도 효과적인 동기부여 방식은 아니다.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스스로 일하게 하는 태도의 변화를 통한 동기부여로 조직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좋아하고 깊이 이해하고 믿어주고 신뢰의 마음으로 중요한 일을 맡겨줄 때 적극적인 자세로 열정적으로 일하게 된다는 심리학적 배경과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 

00녀에서 '아동'까지 '정크콘텐츠'를 막아라 _내용의 첨단화에 관심 가질 때

김효선 (주)여성신문사 사장

음 식 중에서 영양가는 없고 비만과 성인병을 일으키는 나쁜 성분으로 가득 차 있는 음식을 '정크푸드'라고 한다. 쓰레기 음식이란 말이다. 첨가물이 가득 들어 오래도록 썩지 않고 요리가 필요 없어 즉각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 종류들이다.

첨단 정보화 사회에서 컴퓨터 이용자들은 콘텐츠라는 음식을 먹고산다. 먹는 음식이 아니라도 영양소와 유해성분이 제각각 달리 들어 있어서 괜 찮은 종류를 '양질의 콘텐츠'라고 하고 그 반대를 '불량콘텐츠'라고 한다. 요즘 정보화 사회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는 콘텐츠가 불량콘텐츠의 범 략이다. 이른바 '악플', '아동', '음란', '명예훼손', '사실무근' 등의 악성 유해 요소를 가진 쓰레기 같은 '정크콘텐츠'가 넘쳐나는 것이다.

콘텐츠를 먹고사는 정보화 시대에 정크콘텐츠 넘쳐나 사이버공간상 음란물은 인격적 소통 저해

얼마 전에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야한 동영상 이른바 '아동'이 수 시간 방치되어 한차례 소동이 있었다. 관리자의 감시가 잠시 소홀한 몇 시간에 생겨난 일이라지만, 이미 조회는 20만 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포털사이트의 책임론이 부각됐다. 수천억의 영업이익을 내는 포털사 이트 업체가 콘텐츠의 질을 모니터 하는 데에 쓰는 비용은 고작 100억이 라고 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지 바로 며칠 후 똑같은 정크콘텐츠 해프 닝이 재현됐다. 이번에 등장한 암호명은 '장갑은 왜?'라는 것이었다. 맙소 새! 이 외설스런 암호(?)는 검색어 순위에 오르며 괴물 같은 위력을 발휘 했다. 이 두 사건 모두 3월 20일에서 일주일 이내에 벌어진 일이다.

음란물에서 무너지는 건 사람의 인격과 품위다. 사용자도 그렇지만 음 란물에 등장하는 대상들은 이미 사람이 아닌 하나의 소외된 대상물이고 물질의 덩어리로 존재한다. 인격적 소통을 포기할 때 음란물은 완성될 수 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포르노를 문제 삼는다. 그러나 포르노는 어느 사회나 존재한다. 또 책을 손에 쥔 사람만 볼 수 있는 오프라인 세계의 일과 순식간에 천문학적인 숫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접속이 가능한 사이버 공간의 사건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매우 효율적인 대량학 살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해야 할까?

익명성이라는 복면을 쓴 왕따의 정치학 정크콘텐츠의 일차적 희생자는 여성

한달 전쯤으로 옮겨가 보자. 연예인의 우울증과 자살이 화제가 됐다. 이에 뒤따르는 악성 리플, 이른바 '악플' 공세를 기억할 것이다. 죽음에 대 한 숙연함도 잊은 듯, 망자를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와 비난을 퍼 부어 대는 악플러 부대. 그들은 익명성이라는 복면을 쓰고 마음껏 자신의 인격을 죽이고, 죽은 자를 다시 한번 죽이는 지옥의 춤판을 벌이고 있었 다. 오프라인에서 대면하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파괴된 언어들이 쓰레 기 더미를 이루며 굴러다니는 곳, 그곳이 우리의 사이버 인격이 살고 있 는 대한민국이었다.

2006년 인터넷 검색어 1위로 기록된 '된장녀'. 명품을 즐겨 입고 분수 에 넘치게 잘난 척 하는 여자들을 가리키는 언어였다고 한다. 그 덕에 명 품 한 두 개 가진 웬만한 여자들도 '나? 된장녀?' 하는 식의 된장녀 아이 덴티티를 한번씩 생각해 보는 한 해가 되었다. 이른바 '00녀 신드롬'이 작년 한해 도마 위에 오른 유행어였다. 개똥녀, 시청녀, 엘프녀, 딸녀, 개 풍녀……. 이상하지 않은가? 왜 유독 '00녀' 시리즈만 있는지? 또 그 시 리즈 속에 등장하는 그녀들은 어쩔 그리도 하나같이 비정상이고 일그러 졌는지. 최근 목도리녀의 등장으로 긍정적인 장식이 하나 생기는 했지 만 00녀 시리즈의 본질은 '낙인' 찍기이다.

누가 누구를 향해 낙인을 찍는가? 센 사람이, 다수가 약자를 향해 낙인 을 찍고 소외시킨다. 낙인을 찍힌 사람은 더 이상 그 공동체 주류에 소속 될 수 없도록 '왕따'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00녀 시리즈는 네티즌들의 부주의로 우연히 생겨난 유행어가 아니라, 성차별 사회의 약자에게 행해 진 '왕따의 정치학'이자 집단적 폭력이었다.

사이버 공간이 '정크콘텐츠'로 채워질 때 일차적인 희생자는 여성들이 다. 이상하거나 비정상적인 여자들만 공격받는 게 아니다. 익명성, 실시 간, 동시다발이라는 엄청난 사이버공간의 무기는 연령과 지위 고하를 막 론하고 무차별 공격을 해댄다. 연예인, 정치인, 보통여성, 모든 여성들이 희생될 수 있다. 유력한 대권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도 성적으로 희화화 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피해를 입은 적이 있고, 눈에 띄게 활동하는 여성

정치인들도 바로 성적 대상으로 왜곡되는 직격탄을 맞아야 했다.

정보의 첨단화가 불량콘텐츠 양산에만 몰려 내용의 첨단화에 관심 가질 때

우리들은 IT강국 코리아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가득하다. 다른 건 몰라도 인터넷 모바일, MP3, 유비쿼터스, UCC 등으로 이어지는 속도 빠른 대한민국의 첨단성 앞에 우리는 위대한 조국에 감사하며 산다. 최근에는 UCC의 신속한 보급으로 또 한차례 IT기반의 생활환경이 첨단화되는 짜릿한 자극을 느끼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우리의 첨단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음란 UCC 논란을 벌이고 있어야 했다.

돌이켜 보면 데, 음란물과 악플 같은 불량콘텐츠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며,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연이어지는 포털사이트의 음란물 파문도 사실 예견된 일이었다. 모바일의 눈부신 기술로 누드콘텐츠 사업이 번창하고, 온라인 미디어들도 연예인의 벗은 몸 사진으로 네티즌을 끌어 모으기를 일상으로 해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사이버 범죄에서 명예훼손, 성폭력 등의 악성 댓글은 매년 증가해 2002년 315건이던 것이 2006년에는 2.5배가 늘어나 7,881건이 되었다.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종 '안티'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낙인찍기가 유행어가 되었으며, 정보의 민주화는 포르노 생산과 소비의 자유로 이어졌다. 잘 닦인 고속도로에서 값비싼 럭셔리 승용차에 쓰레기 더미를 가득 싣고 다닌 격이라고 할까?

이제는 매연가스만 배출하는 불량 차량도 단속하고, 승용차에는 사람이 타고, 쓰레기는 쓰레기차량으로 분리수거도 하는 내용상의 정비를 해나가야 할 때라고 본다. 우리나라 정보산업의 첨단화가 엉뚱한 방향으로 상당히 흘러가고 있음을 자각할 때가 됐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정책은 기술 중심으로 하드웨어의 첨단화 경쟁력 강화에 관심이 있었지,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점에 아주 진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번에도 정통부는 본격적으로 음란물 단속 대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정보통신 정책이 하드웨어와 기술 중심의 정책에서 콘텐츠의 질에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할 때다.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일단은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야 한다. 사이버공간은 그 자체로 미디어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대형 포털사이트에 이르기까지 모두

미디어에 준하는 윤리적 검열과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오프라인 미디어의 경우 기획회의부터 데스크, 교열 편집에 이르기까지 실로 복잡한 과정에서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거친다. 온라인이 속성은 다르더라도 대중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본질은 똑같고 영향력은 더 막강하다.

사이버공간에서 모니터링하는 담당자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를 제안한다. 이 교육에는 법률적인 지식과 함께, 사이버 미디어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가 포함돼야 한다. 또 한가지 '성인지적 정책'에 대한 교육도 필수적이다. 성인지 정책은 이미 정부 정책의 기초로 채택돼 있고, 올해부터 2년 내에 예결산에 성인지적 시각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정부재정법으로 규정돼 있다. 성인지적 시각의 교육을 통해서 음란물과 악플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감지하는 감수성이 길러질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런 교육이 네티즌의 의식을 일깨우는 캠페인과 회원 동의 약관에도 반영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의 가르침이 생각한다. 내용이 혁신되지 않을 때 첨단의 물질은 나쁜 것만 첨단화 해나가는 괴물로 자라날 것이다. 이번 정통부의 결의가 사이버 문화를 혁신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효선**



김효선 사장

1961년 생으로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여성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주)우먼드림, (주)비즈우먼 사장을 역임했으며, 여성신문사 편집국장 및 이사를 거쳐 2003년 여성신문사 사장에 취임했다. 현재 (사)21세기여성미디어 네트워크 공동대표, (재)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위원, (사)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이사,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이사, 세계여성포럼 조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 & 연구원 소식

회원소식

· 삼성그룹 내에서 '서비스 전도사'로 알려진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의** 최근 저서 <고객 가치를 경영하라>가 서울대, 한림대, 경희대 등의 경영학과 전공 교재 또는 부교재로 채택되었다.



· **강권석 기업은행 행장**이 지난달 7일자로 연임되었다. 강 행장의 연임은 4~5대 행장을 지냈던 정우창 행장 이후 34년만에 처음으로 금융·공기업 수장도 실적이 탁월하면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연임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금융계는 반기고 있다.

· **심갑보(삼익THK(주) 대표이사 부회장)** 회원은 지난달 13일 세종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제13기 세종국정과제연구과정에 강사로 초청되어 "CEO의 역할과 임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 **(주)태창가족(사장 김서기)**의 신규 외식브랜드 '색이 있는 오므라이스 오므스위트'가 지난달 15일~17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7 제17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에 참가했다. 오므스위트는 창업전문 상담가들로 구성된 상담코너를 마련, 예비창업자들에게 가맹점 개설, 오픈 및 물류시스템, 고객 및 사후관리 등 실시간 상담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 **웅진씽크빅(회장 윤석금)**은 파주출판단지 내에 사옥을 마련하고 4월 2일(월) 준공식 및 리셉션을 갖는다. 책의 이미지를 살려 건축된 사옥에는 책을 주제로 한 세계적인 미술작품을 사무실 곳곳에 전시하여 좋은 볼거리를 갖추고 있다.

· **시사여성주간신문 우먼타임스(사장 신숙희)**는 창간 6주년을 맞이하여 지난달 27일 자기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최고전문가로서 21세기 미래변화를 주도하고 여성주의적 리더십으로 한국을 빛낸 대표적 여성을 선정 시상하는 '한국을 빛낸 여성 대상' 시상식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뛰어난 제품들이 세계 속의 명품으로 자리매김함을 위하여 여성소비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 온 명품브랜드를 선정하는 '최고명품브랜드 대상' 시상식을 함께 개최했다. 이 행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사)21세기여성CEO연합, 이화여대 인간생활환경연구소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 **이건호 전 농협대학 학장**이 지난 1월 농협물류의 사장으로 취임했다.

농협물류는 산지출하농산물의 효율적인 운송망을 구축, 농업인의 운송비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협계통사업 조직의 물류업무 통합과 전문화로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농축산물 전문 종합물류협동회사이다.

<변경후 연락처>

· 전화 : 02-2264-7101 / 팩스 : 02-2269-7606

· 주소 : 서울 중구 충무로3가 극동빌딩 809호

· 지방자치아카데미의 풍수지리분야 **윤갑원 강사(정통 풍수지리학회 이사장)**는 '精通通脈地理'와 '半坪의 眞理' 및 이의 '修正增補版' 등 그간에 풍수지리학에 관해 저술했던 내용의 기본이론과 情緒的인 면을 총정리하여 <반평의 진리> 개정증보 3판을 출간했다.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이재욱 GE 헬스케어 아시아성장시장 총괄사장의 차녀 승민양의 결혼식이 지난 3월 31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전선희 회원(世界平和 超種敎 超國家聯合 평화대사)의 차녀 신혜양의 결혼식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시 : 4월 8일(일) 오후2시 30분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양대길 영우통상(주) 회장의 부인께서 지난 3월 14일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알려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웅진씽크빅	윤석금 회장	4월1일
다니스코코리아	조원장 회장	4월1일
제천정신병원	오만식 이사장	4월6일
세림상호저축은행	이재용 회장	4월6일
(주)한국크리버	남재현 회장	4월8일
관동실업(주)	김남윤 상무	4월10일
(주)듀오	이충희 사장	4월10일
(주)도드람B&F	김대성 고문	4월17일
덕지산업개발(주)	배승호 회장	4월17일
전승IT(주)	박용팔 회장	4월19일
영동농장	김용복 회장	4월20일
삼성석유화학	허태학 사장	4월29일

신규 회원



장영주 화가 (개인회원)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228 불제빌딩 7층
장영주 스튜디오
- 전 화 : 02-765-5225
- 팩 스 : 02-3672-7878
- 홈페이지 : www.youngjujang.com
- 소 개 : 뉴욕아고라 갤러리의 전속작가로 활동 중인 서양화가
- 추천인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가입하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소모임 소식

- **이종기업동우회 1그룹(회장 유상옥 / 총무 고지석)**은 일본 도야마 지역으로 부부동반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가 바랍니다.
· 일 시 : 5월 11일(금)~14일(월) 예정 (3박4일)
· 참가여부 : 고지석 세무회계사무소 김성철 (T.02-598-3747)
- **화목회(회장 황석희 / 총무 김창호)**는 지난 3월 20일(화) 양주C.C에서 골프로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 **인경회(회장 이심 / 총무 윤건우)**는 지난 3월 27일(화) 한양C.C에서 월례경기를 가졌습니다.
- **YCF(회장 최우영 / 총무 황진수)**는 지난 3월 27일(화) 강남의 단타이핑에서 덤섬의 세계란 주제로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 **지중해클럽(회장 박돈서 / 총무 박순영)**은 지난 3월 21일(수) 오후 7시 서초동 대원에서 홍익대 김영복 교수를 초청하여 '현대미술사' 특강과 함께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연구원 소식

• **한중 경제무역교류회 및 오찬회 안내**

중국 길림성과 본원은 오는 4월 6일(금) '중국길림성-한국간 경제무역 교류 및 오찬회'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회원사, 각계 기업 등에서 150여명이 참가하게 될 이번 행사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더 많은 기업에게 길림성의 투자환경을 소개하여 양국간 협력

의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길림성에서 韓長賦 성장, 馬明 상무청장, 李錦斌 부성장 등이 방한하며,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 김창록 한국산업은행 총재 등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본원은 지난 2004년부터 王雲坤 길림성 당서기, 徐健一 길림시장 등을 초청해 한중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그 동안 양국의 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4월 6일(금) 10:30~13:00
- 장 소 :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 참가비 : 무료 (인간개발연구원 회원에 한함)
- 주 관 : 중국 길림성 인민정부

• **장만기 회장 국군방송TV 방영**

장만기 본원 회장은 지난 2월 27일(화) 오후 5시 30분 국군방송TV <KFN포커스인>에 "인간개발이 만드는 유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출연하였습니다. 본 방송은 국군방송TV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www.dema.mil.kr/home/focus)

• **회원친선행사 나미나라공화국 방문**

3월 1일 '나미나라공화국 독립선언 1주년'을 맞아 방문한 남이섬은 1490회 경영자연구회에서 강연한 강우현 남이섬 사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50여명의 회원은 새봄의 기운을 받으며 옛 남이섬에서는 향수를, 현재의 남이섬에서는 동화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3.1절을 기념해 애국가 한 소절씩을 부르며 자기 소개를 하는 동안 어느새 버스는 남이섬 선착장에 이르렀다. 남이공화국 입국심사를 마치고 배를 탄 지 잠시, 꿈과 낭만이 가득한 남이섬에 발을 디딘다. 선착장 부근에 조선 세조 때의 청년장군인 남이장군의 묘와 추모비가 보인다. 바로 이곳이 남이장군이 잠시 귀양을 살았던 곳이다. 회원들은 남이장군 묘비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기념촬영을 한다.



■ 남이장군 묘비 앞에서

이어 남이섬에 본격 입국한 일행은 노래박물관 '매직홀'에서 나미나 라공화국 독립선언 1주년 상상편드를 위한 강우현 사장의 설명회를 들었다. 그리고 메타세콰이어길을 따라 강 사장의 사랑방인 공생원으로 자리를 옮겨 간담회를 가졌다.



■ 텀~빈 방 별빛 담는 사랑방, 공생원에서 회원들과 미팅

남이섬을 둘러보기에 앞서 먼저 시선이 가는 곳은 풍경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방문객들이다. 가을 벚꽃 위에 아이를 앉혀놓고 사진을 찍는 엄마 아빠, 연로하신 어머니와 3인승 자전거를 타는 효자 효부, 드라마 '겨울연가'를 찾아온 외국인들 모두 행복해 보였다. 이번 행사에는 어느 때보다 부부동반 회원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들은 잠시 '겨울연가'의 배우로 변해 카메라 앞에서 '신 겨울연가'가 진행중임을 보여주었다. 그 중 40년간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는 탁재용 회원의 사진을 소개한다. 시종일관 서로를 보필하는 모습에서 아름다운



■ 늙지 않는 눈사람

연가를 읽는다. 이번 여행은 남이섬의 유명세와 화창한 날씨로 인해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남이섬 구석구석을 모두 둘러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오늘을 추억 삼아 훗날 남이섬에서 달밤과 별밤을 보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새벽 물안개를 맞이할 수 있다면... 행복한 상상을 뒤로하고 일행은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지자체 소식

• 고창군, 13일부터 청보리밭 축제

올해로 네 번째 열리는 전북 고창군(군수 이강수)의 청보리밭 축제가



4월 13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 달간 '경관농업과의 만남'이란 주제로 공음면 선동리 일대 30여 만평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보리밭에 나 있는 S자와 U자 등 동선길을 따라 '사잇길'을 걷는 프로그램과 음악인 윤용하의 곡 '보리밭' 등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가곡이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또한 짚풀공예, 다듬이돌 두드리기 등 추억 만들기와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등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 담양군, 대나무축제 29일부터 시작



전남 담양군(군수 이정섭)의 제9회 담양대나무축제가 오는 4월 29일부터 1주일간 담양문화공원, 죽녹원, 시가문화촌, 대나무박물관 일원에서 '맑은 물과 시원한 댓잎소리에 행복한 사람들'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축제에는 전야제와 개막식, 군민의 날 기념행사, 폐막식 등 의식행사와 함께 '늘 푸른 대숲', '즐거움 놀이문화', '숫구치는 대나무' 등 3개 분야 43가지 행사가 진행된다. 분야별 주요 프로그램은 대나무공예품 경진대회, 대나무 박람회, 대나무 악기 경연대회, 죽검베기대회 등이 열린다.

회원가입안내

• 회원 자격은

본 연구원의 이념과 정신에 동의하는 기업체 및 단체의 임원 또는 전문직업인

• 회원이 되시려면

회원가입신청서 제출 (신청서는 별도첨부)
회비 납입 (연회비로 가입일로부터 1년간)

• 국내회원

개인회원 : 年1,000,000원 (1인)
법인회원 : 年3,000,000원 (3인~5인)
특별회원 : 年5,000,000원 (6인이상)

• 연회비 납입방법

하나은행 : 102-910003-99904
예금주 :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변화를 위한 프로세스 '퍼스널 리더십'

사람들은 누구나 신동(神童)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무한한 욕망을 가진 존재로 태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시절을 지나고 어른이 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현대의 직장인들이 바쁜 일상에 쫓겨 자신이 원하는 삶을 접거나 언젠가 때가 오면 하겠다고 미루어둔 채로 일상을 살고 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이 도사리고 있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숨겨져 있기 마련이다.

무엇인가 변화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조직의 리더에게 퍼스널리더십과정은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최선의 답은 과정 참가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만 깨달음을 얼마나 삶과 업무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성과는 천차만별. 도곡동 소재 치열교정 전문병원 웃는내일치과 대표원장인 김병호 원장은 무엇이든지 배운 대로 실천하는 탁월한 고객이었다. 과정 중에 기록했던 꿈의 목록 중 하나이었던지 지난 2006년에는 홀연히 미국 UCLA 대학에 1년간 교환교수로서 온 가족이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지난 1월 다시 도곡동으로 복귀했다.

김 원장은 수료소감에서 "아무런 지식과 준비 과정 없이 20여명의 병원 식구들을 이끌어 가게 된 나는, 나를 계발하는 어떤 종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 정말로 우연하게 LMI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었다. 이것은 나에게 엄청난 변화와 발전의 계기가 되었고 우리 가정과 직장에도 큰 행복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술회했다.

이 과정의 성과로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 자신의 중장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웠을 뿐 아니라 병원의 미래에 대한 목표와 세부 실천단계를 수립했다. 이렇게 문서화된 목표설정 및 성취도 평가과정은 이제 생활 속의 습관이 되어 가고 있다. 특히 계획을 위한 시간을 따로 배정하고 있으며 이 시간은 나의 성과향상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다. 개인적으로는 가족과 대화시간이 늘어났으며 자녀들에게도 꿈의 목록을 기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구체적 성과를 꼽았다.

한편으로 "매일 아침 굿 뉴스 발표시간을 가짐으로써 조직원들의 분위기가 밝고 친밀해졌다. 이로 인해 고객만족도가 향상되고 진료부적합 사항이 감소했으며, 고객 또한 증가했다. 위임을 통해 나의 시간과 능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직원들의 책임감과 업무능력이 향상되었다. 개인별, 팀별, 병원전체의 업무목표설정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특정인의 노력과 능력에 상관없이 병원이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조직측면에서의 성과를 피력했다.

리더인 원장의 변화가 직원의 태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것이 자발적 동기 부여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프로그램이었지만 나의 경우 완전히 자발적 동기부여능력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행동계획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참가자에 따라서는 행동계획을 실천하는 데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띄고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김병호 원장과의 만남은 참 행운이었다. 김 원장님과 웃는내일치과의 무한한 성장과 발전을 기원한다. 

■ 한국엘엠아이 소식

-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EPL) 76기 수료식
3월 29일(목) 오후 7시 송향섭 퍼실리테이터의 진행으로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EPL) 76기 수료식'이 LMI 본사교육장에서 있었다.
- EPL코칭과정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한경아카데미에서 LMI EPL코칭 과정이 안효열 엘엠아이 마스터코치, 김대곤 한경아카데미 원장, 송향섭 엘엠아이 수석FT의 진행으로 교육 중이다.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 한국엘엠아이(주)
Tel. 02-2202-8700 / Fax. 02-445-2086 / www.lmikorea.com

한국엘엠아이 라이선스

■ Big Dream & Success 모임안내

- 제 42차 수료자 모임
4월 9일(월) 6시 30분부터 Big Dream & Success 한국교육장에서 '재산관리와 재테크 노하우'를 주제로 홍용수 채테크코리아 회장의 강연이 열린다. 회비는 3만원(식사비 포함)이며 관심 있는 개인, 단체, 회사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LMI EPL 과정 KICK OFF MEETING

매주 금요일 오후 2시~6시, Big Dream & Success 한국교육장에서는 공한수 원장의 진행으로 EPL 과정 킥오프 미팅이 열린다. 관심 있는 개인, 단체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단체 참여시 노동부로부터 교육비 일부가 환급된다.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 Tel. 02-774-3230 / www.whynotyou.co.kr



한국엘엠아이(주)
135-531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4 강남우체국 5층


지식경영의 첫걸음 독서경영

조선의 실학자 이덕무(李德懋)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면서 스스로를 '간서치(看書痴, 책만 보는 바보)'라고 했다. 그는 독서는 배고픈 것을 잊게 해주고 추위를 막아주며 근심과 번뇌를 없애주고 기침까지 낫게 해주는 등 네 가지 유익함이 있다고 했다.

지식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독서는 이 네 가지 유익함에 더해 기업의 지식경영을 보완해 지속적 성장경쟁력을 확보하는 '독서경영'으로 확산되고 있다. 독서가 기업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2000년대 이후 많은 기업들이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움직임은 '책 읽지 않는 사회'가 심화되어 가는 지금의 현실에 지식사회의 필수요소인 책의 가치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성과가 뛰어난 기업이나 성공한 CEO들 곁에는 항상 책이 있었고, 독서경영을 한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책읽기를 통한 간접경험에서 사업의 아이디어와 삶의 지혜를 찾는 것이다. 이메이션코리아 이장우 사장은 외환위기 때 자본잠식 상태까지 갔던 회사를 2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킨 힘이 바로 책이라고 말한다. 우림건설의 심영섭 부회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인들의 공통점은 긍정적인 사고와 책읽기에 있었다며 독서경영을 통해 우림건설을 건실한 건설업체로 이끌고 있다. 책을 읽는다고 당장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책은 그대로 무의식 속에 녹아들어 '나'를 만든다는 사실이 독서경영의 힘이다.

독서경영은 단순히 개인의 '책읽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독서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이 조직 안에서 전파되고 공유되어 고스란히 축적되어야 한다. 결국 독서경영의 성패는 독서로 자연스럽게 내부화된 지식들이 자기계발, 업무능력 향상을 만들고 기업의 전략적 차원에서의 성장동력이 된다는 점을 조직원들에게 이해시키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원에서는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 '10분 독서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하루에 최소한 10분의 독서를 습관화하면 사람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많은 기업과 CEO들이 관심을 갖고 실천하고 있는 독서경영에 지금부터라도 동참한다면 학습하는 조직으로서의 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02-2203-3500 내선107

"10분 독서운동" 4원칙

독서는 꿈을 주고 세상과 소통하는 길을 터주는 소중한 습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10분 독서운동에는 4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행복한 독서경영 원칙을 통해 창조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원칙 : 모두 읽어오

모두가 읽는다는 것은 회사의 직원 전체가 한다는 의미이다.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10분독서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시간적 배려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부서장(팀장)부터 진지한 모습으로 책 읽기에 열중할 때 직원들에게 그대로 본이 되어 기업의 문화가 되기 때문이다.

기업 전체에서 진행이 어려다면 부서나 팀단위로 업무 전 10분, 또는 점심 이후, 나른한 오후시간, 퇴근시간 직후 등을 활용해도 좋다.

2원칙 : 날마다 읽어오

독서는 습관이다. 단 10분에 불과하다고 해도 매일아침 반복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들이 날마다 책을 읽다보면 다양한 시각으로 성장하게 된다. 직원들간 대화의 주제가 달라지고, 기업의 문화가 바뀔 것이다. 하루에 10분 정도 책을 읽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지만 하루에 10분만 책을 읽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하루에 10분은 책을 읽자는 사회적 제언임을 강조하고 싶다.

3원칙 : 좋아하는 책을 읽어오

정해진 필독도서보다는 본인이 좋아하고 원하는 책을 읽자는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책을 추천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꾸준하게 책 읽는 시간을 가지면서 스스로 좋은 책을 고를 수 있도록 사내도서관 도서구입제도 등의 조건을 만들어주자.

자체적으로 책을 가지고 올 경우 부서별로 서로 바꿔서 보는 것도 다양한 책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다.

4원칙 : 그냥 읽기만 해요

아무리 좋은 도서라도 독후활동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면 행복한 책 읽기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불필요한 부담을 일체 주지 말자는 의미다. 지금까지 직장에서 이루어진 독서경영이 책을 좋아하는 매니아 위주로 운영되고, 독후감 등이 전제가 되었는데, 이 운동은 무엇보다도 책과 멀리있는 직원들을 움직이는데 아주 효과적인 것이다.

Book Review

경영의 마음가짐

마쓰시타 고노스케 지음 / 청림출판 / 203쪽

세계적인 대기업 마쓰시타 전기의 창업자가 쓴 100년의 경영일지!



경영의 신(神)이라 불리는 마쓰시타 고노스케. 초등학교를 중퇴했던 그는 '꿈임없는 창의적 연구를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경영이념 아래 마쓰시타 전기를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경영의 지혜> 시리즈는 지난 1989년 94세를 일기로 사망하기까지 경영 일선에서 수많은 업적을 이룬 그의 경영철학을 담고 있다. 이번 제2편 <경영의 마음가짐>은 조직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과 최고경영자(CEO), 관리자들에게 필요한 각종 경영이념과 경영 철학을 수록하고 있다.

피드백의 힘

조셉 포크먼 지음 / 북폴리오 / 255쪽

숨어 있는 가능성을 끌어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피드백의 힘



피드백의 뛰어난 효과를 설명하는 이 책은 사람들에게 피드백이 어떤 효과를 선사하는지 알려준다.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자문활동과 변화추진을 지원하고 있는 저자는 피드백을 통해 남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새롭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울러 피드백을 원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으며, 피드백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사람의 지혜는 개인적인 차원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Culture

태양의 서커스 - 퀴담



1984년 캐나다 퀘벡에서 시작해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연단체 '태양의 서커스'가 내한 공연을 한다. '퀴담(Quidam)'은 라틴어로 '익명의 행인'이라는 뜻으로 태양의 서커스 팀이 세계 순회 공연하는 6개의 작품 중 가장 예술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퀴담의 매력은 서커스를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점이다. 따뜻한 줄거리에 첨단 무대장치, 화려하고 매혹적인 의상과 소품, 웅장한 음악이 어우러져 누구나 한번쯤 꿈꿔본 환상의 세계를 그려낸다. 공연을 위해 잠실종합운동장에 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움직이는 마을, 빅탑'을 세웠다.

1984년 캐나다 퀘벡에서 시작해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연단체 '태양의 서커스'가 내한 공연을 한다. '퀴담(Quidam)'은 라틴어로 '익명의 행인'이라는 뜻으로 태양의 서커스 팀이 세계 순회 공연하는 6개의 작품 중 가장 예술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퀴담의 매력은 서커스를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점이다. 따뜻한 줄거리에 첨단 무대장치, 화려하고 매혹적인 의상과 소품, 웅장한 음악이 어우러져 누구나 한번쯤 꿈꿔본 환상의 세계를 그려낸다. 공연을 위해 잠실종합운동장에 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움직이는 마을, 빅탑'을 세웠다.

- 기간 : 3월 29일 ~ 6월 3일
- 장소 : 잠실종합운동장 광장 내 빅탑
- 문의 : 1544-1555, 1588-7890

뮤지컬 우모자



아프리카 대륙의 뜨거운 열기가 물씬 풍기는 뮤지컬 '우모자(Umoja)'가 세 번째 내한공연을 펼친다. '우모자'는 원시 부족사회에서부터 아파르트헤이트

(Apartheid, 인종분리)로 불리는 인종분리 정책의 핍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남아공 민족들의 역사를 아프리카 토속음악과 춤으로 풀어낸 옴니버스 뮤지컬이다. 우모자의 가장 큰 매력은 강력한 아프리카 타악기를 바탕으로 남아공에서 유행했던 스윙재스, 탄광 노동자들의 부츠를 이용한 대화에서 유래한 검부츠 댄스와 신세대 아프리카 젊은 이들의 힙합 리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 기간 : 4월 5일 ~ 14일
- 장소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문의 : 02-548-4480

리더의 정신건강이 중요한 이유

양창순 대인관계클리닉 원장

미국의 영화배우 짐 캐리는 영화 한 편의 출연료가 2천만 달러가 넘는 스타 중의 스타다. 데뷔 이후 오랫동안 그는 주로 몸과 얼굴 표정으로 웃기는 코미디 영화의 주인공이었다. 또 그런 영화들은 대부분 흥행에서 크게 성공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만 봐도 벌써 웃음을 터뜨릴 준비가 돼 있었다.

그런 그가 요즘 매우 심각하고 우울한 영화에 출연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중에는 저예산의 독립영화도 있지만 메이저급 규모의 영화에서도 그의 심각하고 진지한 연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관객들에게 그의 어두운 모습은 너무도 낯선 모양이다. 덕분에 예전의 코미디 영화만큼 흥행에 성공하고 있지는 못한 듯하다.

그런데도 어쩌서 짐 캐리 자신은 어두운 영화에 경도되는 걸까? 그것은 그의 내면세계가 그만큼 어둡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실제로 그는 우울증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그의 모습은 언제나 명랑 쾌활하다. 무슨 영화 시상식이나 혹은 매체와의 인터뷰 때도 그는 멋진 개그를 날리며 유쾌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 사생활에서는 때때로 한없는 우울 속으로 추락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배우로서도 차츰 어둡고 우울한 역할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의 내면세계는 그의 삶 전체에 영향 미쳐 그가 리더라면 자신뿐 아니라 조직의 운명 좌우할 수도 리더의 영향력은 조직과 함께 승리는 것

그의 예에서 보듯이, 한 사람의 내면세계는 때로 그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가 짐 캐리 같은 배우라면 그다지 문제가 안 될지도 모른다. 그 개인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대중에게는, 어쨌든 그의 영화를 볼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적으로 관객의 선택에 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한 기업의 CEO나 조직의 리더라면 얘기가 다르다. 리더의 영향력은 언제나 그 조직과 함께 승수기 때문이다. 더욱이 요즘은 예전보다도 훨씬 더 CEO나 리더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스타성마저 있어서 그의 존재가 회사 전체를 대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리더의 정신건강이 중요해지고 있다.

리더가 긍정적이고 불안감에 쉽게 압도되지 않으며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에 따라 그의 영향력은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그 기업의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때로는 기업 전체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도 하는 것이다.

다음은 어느 기업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화다.

그 기업의 임원들 중에 회사에 공로가 큰 사람이 있었다. 모두들 다음 번 대표이사는 그가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정기 인사결과는 뜻밖이었다. 그가 영향력이 비교적 적은 부사장직을 맡는 데 그쳤던 것이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인사결과에 사내가 슬렁거릴 정도였다. 당사자도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그는 오너를 면담했다. 그리고 어쩌서 자기보다 능력도 없고 공로도 덜한 사람이 사장이 되고 자기는 밀렸는지를 따져 물었다. 그러자 오너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

"당신 말이 다 옳다. 당신 말대로 능력이나 공헌도로 보자면 당신이 사장이 되는 게 합당한 처사다. 하지만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신은 보스로서 자질이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첫째, 당신은 평소에 불평불만이 너무 많다. 둘째, 패사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다. 셋째, 분노를 충동적으로 표출한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당신의 뛰어난 능력을 잠식하는 것을 아는가. 더구나 그런 문제들은 전염성이 강해서 당신뿐 아니라 조직 전체가 나쁜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 난 우리 회사에 그런 영향력이 퍼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부사장직을 마련한 건, 그나마 당신의 일에 대한 능력을 아깝게 여겼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그 오너는 평소 리더의 정신건강에 주목해 오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면담 끝에 그에게 상담치료를 권유했다. 그는 처음 한동안은 실의와 낙담에 빠져 어쩔 줄 몰랐다. 더럽고 치사하다는 생각에 상담은커녕 그대로 사표를 던질까도 여러 번 고민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음을 바꾸었다. 오너가 지적한 문제들이 자신의 아킬레스건이란 사실을 그 자신 모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그와 같은 나쁜 습관들을 고치지 않는 한, 그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앞날이 그리 밝지 않으리란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상담을 결심했고 다행스럽게도 꾸준한 치료를 계속했다. 물론 그 결과는 해피엔딩이었다. 그 자신 스스로 놀랄 만큼 변화한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다.

**리더는 정신세계가 건강해야 자기 경영에 성공할 수 있어
정신건강의 독감 바이러스 예방 위해서는 늘 '마음의 비타민' 챙겨야**

워렌 베니스는 리더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로 '자기 경영'을 들고 있다. 그는 자기 경영에 실패한 리더를 '무면허 의사'에 비유한다. 엉터리 신념과 무능력으로 조직에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리더가 자기 경영에 성공하려면 먼저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리더로서 겪어야 하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일단 정신세계가 허약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리더의 정신건강이 위협에 빠진 경우, 그가 퍼뜨리는 영향력은 대단히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리더의 나쁜 영향력은 마치 독감 바이러스와도 같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간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끝없는 불평불만과 부정적인 생각들, 교묘한 속임수와 무책임한 거짓말, 눈앞의 이익만 챙기는 이기주의, 수평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지 못하게 하는 독선과 아집 등등.

만에 하나, 리더가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고 생각해 보라. 문제가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 기업 전체에 낙담과 좌절의 분위기가 퍼지면서 경영이 부실해지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더 나쁜 것은, 한번 그런 분위기가 휩쓸고 지나가면 제아무리 능력이 탁월한 사람도 그 조직을 회생시키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다.

조직이 그와 같은 위기 상황에 놓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리더는 수시로 자신의 정신건강에 대해 체크해 보아야 한다. 그래야 나쁜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재빨리 전염을 차단할 수 있다.

두 번째, 리더는 늘 자신의 영향력에 대해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비전과 목표, 창조성과 아이디어, 상하좌우의 인간관계 등 어느 것 하나 조직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제나 자신이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또 조직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조금이라도 병적인 징후가 발견되면 곧바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신체적인 병도 발병 후 방치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가듯이, 정신건강도 마찬가지다. 아직 증상이 가벼울 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지금까지 리더의 정신건강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와 해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리더의 정신이 건강하고 심리상태가 안정돼 있는 조직은 겉보기에도 이미 다르다. 리더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조직에 균형감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더는 언제나 자신에게 정신적 활력과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을 먹듯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비타민을 챙겨야 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긍정적인 시각, 유연한 사고, 관용과 배려의 능력' 이 세 가지 비타민은 리더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다. 잊지 말고 늘 꼬박꼬박 챙기시기를! **KHORI**



양창순 원장

1955년 생으로 연세대 의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정신과·신경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서울백제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부원장, 美 HARBOR-UCLA병원 정신과 방문교수 등을 역임했다. 오랫동안 각종 방송활동과 신문 등에 '대인관계', '심리학'에 관한 글을 연재했다. 현재 양창순신경정신과 원장 겸 대인관계클리닉 원장으로 재직하며 연세대, 한양대 의대 외래교수로 활동 중이다.



깊어가는 한국의 고뇌

조 순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 前 경제부총리



나라의 전망에 대해 매일같이 비판의 소리를 듣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낙관하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낙관은 낙관이 아니고 애국도 아니다.

친미니 친북이니, 좌파니 우파니 하는 모든 선입견을 다 버리고 한국의 앞날을 생각해 보자. 이 나라는 해방 이후 가장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 나라를 둘러싸는 어두운 그림자가 시시각각 짙어지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태연하고 국민 역시 그러니, 한국의 고뇌는 깊어만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 동안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소리는 그만 두자. 다 아는 소리다. 자화자찬의 이면에는 엄청나게 풀기 어려운 문제가 쌓이고 있다. 한마디로 정치, 외교, 경제, 교육 등의 개선의 길이 꽉 막혀 있다.

정치를 보자. 정치권의 리더십이 지금처럼 빈약한 경우는 일찍이 없었다. 여권은 대선주자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었는가. 그러면서도 개헌과 한미 FTA에 '울인'하고 있다. 앞으로의 9개월은 이것을 중심으로 판이 짜일 것 같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를 더욱 짙게 할 뿐, 장래의 어두움을 걷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로 돼 있기 때문은 아니다. 개헌이 우리 정치의 리더십을 살린다고 볼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경제는 어쩐가. 어느 대기업 총수는 몇 해 후면, 혼란이 올 수 있을 것이라 했지만, 나는 우리는 이미 그 어려움의 와중에 빠져 있다고 본다. IMF

이후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업계의 리더십도 빈약하다. 전경련 회장 자리 하나 제대로 못 내고 있다. 국민은 저성장과 양극화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한미 FTA가 이 경제를 두 가지 늪에서 헤어 나오게 할 것인가. 그렇게 믿을 하등의 이유도 없다. 내가 보기에 한미 FTA는 가뜩이나 빈약한 이 나라 정부의 역할을 원천적으로 막아 버릴 것이며, 양극화는 더욱 가중될 것이고, 실업문제 역시 그럴 것이다.

대외관계는 어떻게 될까. 2월 13일 6자회담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지난 반세기동안 남북관계 최대의 뉴스였다. 북한의 정권붕괴를 바라던 미국의 대북정책의 기초가 달라졌다는 신호였다. 앞으로 북미관계가 어떻게 될지 속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하자면, 한국이 대북지원 부담의 큰 부분을 지게 될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나빠지는 경제가 한편으로는 FTA의 탓에 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북지원의 부담에 허리가 휘게 될 것 같다. 우리의 정치, 사회, 교육 등에 대해서도 북한의 변수가 추가될 터인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많은 국민이 가뭄에 비를 기다리듯, 정권이 갈리기를 바라고 있다. 정권이 갈리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인가. 그런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386세대의 무능을 나무라는 사람들이 집권하면 386보다 나을 것인가. 꼭 그럴 것 같지도 않다. 386을 등장시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닌가. '참여정부'는 그전의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정권만 바뀌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 기대는 항상 빗나갔다. 그 기대가 실현될 가능성은 세월이 지날수록 적어지고 있다. 좋은 사람이 나와야 한다. 좋은 사람이 나오자면 국민의 마음이 달라져야 한다. **KNOI**

귀사의 소중한 인재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인재 · 보다 큰 미래를 꿈꾸는 인재 · 세상을 새롭게 보는 인재

무엇을 변화해야 할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된 방법이 필요합니다.

변화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지도자가 변할 때 조직도 변합니다.

조직의 성과는 리더십에 달려있습니다.

성과는 태도의 결과, 습관의 결과, 목표설정의 결과입니다.

이 과정은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틀을 제공합니다.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 과정

교육일정 안내

- 교육 일시 : 2007년 4월 25일 저녁7시
- 교육 장소 : 엘엠아이 본사 회의실 (대청역)
- 인 원 : 12명 이내
- 문 의 : 02-2202-8700

지사 및 컨설턴트 모집 설명회

- 보다 큰 미래를 꿈꾸는 이들의 꿈의 실현을 돕는 일에 동참하실 분을 초청합니다.
- 설명회 일시 : 2007년 4월 25일 저녁7시
- 설명회 장소 : 엘엠아이 본사 회의실 (대청역)